

文化財學碩士 學位論文

포항시 주요문화재
활용을 통한 보존정책에 관한 연구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吳 相 基

2005年 6月

포항시 주요문화재
활용을 통한 보존정책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김 창 호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6月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吳 相 基

吳相基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印

審 查 委 員 印

審 查 委 員 印

慶州大學校 大學院

2005年 6月

目 次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3. 연구 동향과 필요성	8

II. 보존과 활용을 병행하는 문화재관리 추진배경

1. 보존의 역사적 배경	24
2. 보존과 활용의 연계 필요성	26
3. 포항시 주요문화재 활용과 보존관리 방향	27

III. 포항시의 문화재관리 행정조직 현황과 개선방향

1. 포항시의 문화재관리 행정조직 현황	32
2. 포항시 문화재관리 행정조직 문제점 및 개선방향	36

IV. 포항시 문화재 관리현황과 활용분야별 보존현황

1. 포항시 문화재관리 기본현황	39
2. 역사 문화 공간 조성으로 시민 휴식 공간 활용가능 문화자원	52
3. 관광자원 활용가능 문화자원	61
4. 종합박물관 신축에 따른 전시자료	71

V. 포항시 주요문화재 활용을 통한 보존정책 제시

1. 3개 산성의 역사문화공간화 방안	84
----------------------------	----

2. 종합박물관 건립 방안	88
3. 역사 체험장 조성방안	92
4. 문화유적 체험단 운영	101
5. 1사1문화재결연 보호운동 전개	102
6. 포항의 정신문화의 상징 ‘연오랑 세오녀’ 뮤지컬 제작	104
7. 경주 권 신라문화관광객 유치 및 관광벨트화	107
8. 문화재관리 전담기구 설치	110
9. 비지정 문화재 보존대책	112
10. 각계층 시민참여 ‘지역문화재 보존위원회’ 구성 운영	113
11. 문화재 애호단체 관리 육성	115
 VI. 맺음말	 118
 참고문헌	 125
참고 도판	126
ABSTRACT	159

도 표 목 차

<표 1> 포항시 문화공보관광과 사무분장 사항	33
<표 2> 포항시 문화공보관광과 문화예술담당 분장사무	34
<표 3> 포항시 문화공보관광과 문화예술담당 공무원 현황	35
<표 4> 경상북도 시군별 문화재지정현황	41
<표 5> 포항시 문화재 지정종별 보호구역 지정현황	42
<표 6> 포항시 지정문화재 지정기관별 보호구역 지정현황	43
<표 7> 포항시 문화재 지정현황	44
<표 8> 포항시 관내 비지정 문화재 현황	47
<표 9> 포항시 관내 향교현황	48
<표 10> 포항시 관내 서원현황	49
<표 11> 포항시 관내 관아건물 현황	50
<표 12> 포항지역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현황	51
<표 13> 흥해 대련 인터체인지 중기마이오세 연체동물화석 조성표	81

참 고 도 판 목 록

<도 1-1~4 >	장기면 산서리 세터마을 구석기 유물 유적	126
<도 2 >	홍해 남미질부성 보존 현황도	128
<도 3-1~7 >	홍해 남미질부성 보존현황 전경사진	129
<도 4>	오천 고현성 위치도	131
<도 5-1~8 >	오천 고현성 보존현황 전경사진	132
<도 7-1~4 >	대송면 영일읍성 전경	135
<도 8 >	민치억, 이최응 영세불망비 유적	137
<도 9 >	홍해 제남헌 건물 전경	137
<도 10-1~2 >	홍해 민속박물관 전경	138
<도 11-1~4 >	장기읍성 전경	139
<도 12-1~2 >	새마을운동 발상지 유물유적	141
<도 13-1~2 >	연일읍 달전리 주상절리 형성 원경	142
<도 14-1~2 >	일월지 전경사진	143
<도 15 >	영일민속박물관내 유물보관현황	144
<도 16 >	영일 냉수리 신라비	144
<도 17-1~2>	오어사 동종 및 원효대사 삿갓	145
<도 18 >	보경사 동종	146
<도 19-1~3 >	수원김씨 김정교지 사진	147
<도 20 >	역사문화공간 조성도	148
<도 21 >	포스코 직원 체육공간(오천읍 고현성 성 상단부)	151
<도 22 >	종합박물관 조성 가능지(호미곶 등대박물관 옆부지)	151
<도 23 >	포항 문화유적 관광벨트 개발 계획도	152
<도 24 >	구룡포 일본건물 보존 전경	158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문화는 정규적인 교육이나 종교적인 신앙, 일상적인 사회적 관계와 같은 복잡한 의사소통체계에 의해 한 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전달되는 것이며, 이는 축적된 경험을 통해 우리의 행위를 안내해 주는 잠재적인 길잡이인 동시에, 인간이 다른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생존을 위한 설계도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1)

이러한 문화가 열려있는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과정을 통하여 역사의식을 깨우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 각종 문화재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아울러 보존에 대한 중요성 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이들 문화재에 대하여 현 세대에서 문화재에 대한 학문적 연구 기법과 보존 기술의 한계를 인정하고 후대에게 문화재 연구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재 보존관리정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문화재를 아끼고 보존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문화재보존에 따른 제반 문화재정책들은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급 박물관 및 학계를 중심으로 한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관리와 관심으로 일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각 지방마다 지방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유한 지방색을 나타내는 지방 특유의 문화유산들이 무수히 많으나, 이들은 각기 지역민들과 지방행정관서의 외면과 무관심,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훼손 및 파괴, 멸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1) 문화재청, 문화유산 포럼, 역사 문화 환경과 도시개발, 일성사, 1999, 7페이지.

또한 최근 도시권 확장 과정에서 지정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도심 속의 지정문화재들로 인하여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이 저해되는 등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문화재 민원 사례가 많으며, 이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 등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정해제 등 주민 다수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지방문화재에 대한 관리현실이라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지방화 분권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각 지방마다 지방 나름대로의 향토문화를 주제로 한 문화축제를 비롯하여 예술작품 전시행사 등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방고유의 정체성을 살리는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위한 노력은 아직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그리고 최근 주5일제 근무제 실시 확대 및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 증대, 역사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 교통발달에 따른 원거리 관광수요 확대 등 관광자원으로서 문화유적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는 만큼 문화유적을 단순히 보존 그 자체에 치중할 것이 아니고, 이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과 연계한 생활 속의 문화재로서 새롭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문화재를 보존하는 근본목적과도 부합될 것이다.

이러한 제반 문화재 보존관리 현실에서 전국 각지에 산재한 문화재에 대하여 활용을 통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능동적인 보존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이며 지역의 문화재는 해당지역의 주민들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보존 관리하는 상향적 보존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지방문화재의 이러한 효율적인 보존 관리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지방화 도시화 과정에서 개발로 인하여 파괴되고 지역민들로부터 개발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외면당하고 있는 지역문화재를 생활공간의 일부

로서 역사문화를 체험하는 동시에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방안에 대하여 포항시를 중심으로 대안을 찾아보기로 한다.

경주, 부여 등 역사도시도 아니고 문화재 관리예산 및 행정체계가 미완적인 평범한 기초자치단체로서의 포항시를 통하여 문화재 보존을 전제한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타 도시에서 적극적인 시도를 기대하고 나아가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는 결국 문화유적이 시민 생활 속의 일부로서 시민생활과 밀착된 문화재 보존 정책을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자율적인 문화재 보존의식이 팽배되고 지방의 역사문화공간을 적극적으로 체험하고 활용하여 지방 고유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지방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동시에 나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문화재 활용의 정책적 대안을 찾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문화재보호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²⁾

조상들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여 있는 문화재를 보존을 위한 보존, 그 자체만을 위하여 박제된 형태로 보존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과거 문화가 서린 문화유산을 현세대가 그들을 활용하고 생활의 일부분으로 이용함으로써 문화재 보존의 궁극적인 목적인 조상의 예지와 슬기를 배울 수 있다.

2)문화재보호법 제1조.

그동안의 문화재 정책은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왔다.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이를 훼손함이 없이 관리하는 것이 문화재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지만 문화재를 통하여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전통문화의 향취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함께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재는 이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서 더 나아가 국민들이 문화재를 알고 찾고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3)

그 동안 문화재 정책은 원형보존에 치중해 왔다. 하지만 21세기에는 원형보존 이라고 하는 문화재 정책의 기본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존의 현상위주에서 체계적이고 예방적인 보존으로 기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형보존이라는 기능뿐만 아니라 활용으로까지 정책기능으로 확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조화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4)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리 현실을 보면, 문화재 보존과 시민생활과의 상관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형성됨에도 그 중요성인 인식하지 못한 채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도심지 및 도심외곽지에 위치한 지정 문화재들로 인하여 도시개발의 기형적인 현상과 이에 따른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가까운 예로서 각종 건설공사 시에 매장된 문화재가 발견될시 관련법⁵⁾에 의거 해당 관청에 신고하여 적절한 보존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암암리에 파괴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알게 모르게 많은 문화재가 사라지고 있다.

또한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어 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될시 소유자들과

3)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2002, 48페이지

4) 문화관광부, 문화정책백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4, 344페이지

5) 문화재보호법 제43조(발견신고) 토지 해저 또는 건축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이하 “매장문화재”라 한다)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 또는 토지, 해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 사유재산 권리 분쟁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문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냉소적 인식 등으로 인한 문화재 관리에 많은 애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 관리 현실에서 도시발전의 저해요소로 대두된 문화유적을 시민생활환경의 일부분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화재 지정해제로부터 보호하는 방안과 도심 속의 역사문화재가 시민들에게 정신적인 풍요로움과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환경요소로 인식되는 문화재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방안이 요구되며 이는 시민 자율적 보존의식이 생성되는 적극적인 문화재 보존정책이 요구된다.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화재 보존에 대한 획일적이고 상의 하달식의 보존관리방향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그리고 문화재와 관련된 관계 기관단체 등이 함께하는 지역별 문화재별 특색 있는 보존방안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서 지역주민들과 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에 대한 성숙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보존을 전제로 한 문화재 활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지역민과 호흡하는 문화재 보존과 활용정책을 개발하여 행정과 접목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아진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주민들과 최일선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을 연구 범위로 정하고자 하였고, 최근 비교적 지역개발이 빈번함에 따라 도시확장과 문화재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는 포항시를 지역적 범위로 정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대상을 첫째 문화재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문화유적을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민원 해소와 동시에 보존을 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문화유산들과 둘째 이들 문화재를 활용하여 시민생활과 연계된 역사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관광자원으로 조성이 가능한 문화유산 그리고 셋째 향후 문화재 보존

을 위한 시민 자율적 보존의식 제고 방안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한 사물이 이미 현실적 이용가치가 없어져도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오히려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증대되는 경우도 있으며, 관광자원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경우도 있다.⁶⁾

즉, 문화재는 과거에 속하는 것이지만 현재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보존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용할 것이기도 중요한 현안이다. 보존과 활용은 이미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는 문화재 보호의 목표이다. ⁷⁾

이를 위하여 지역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 속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도심환경을 저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문화재 등 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 발생을 야기하고 있는 지정문화재들을 역사 체험장으로 활용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속의 문화재로 거듭나게 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화 시대에 지역문화재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켜 지역민들의 향토애를 결집시키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방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동시에 훼손되고 파괴되는 등 사라져가는 문화재를 보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문화재 정책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에 산재된 각종 문화유산에 대하여 문화재보존을 전제로 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적극적인 문화재 보존방안 연구에 있어 포항시라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하기로 하였으며,

6) 김정배, 관광자원관리, 형설출판사, 1994, 101페이지

7) 문화재청, 문화유산 포럼Ⅲ, 대정, 2001, 16페이지

포항지역에 산재한 주요문화재에 대한 보존 실태를 포항시에서 자료협조를 받았으며 향토사학자들의 고견을 청취하였으며 관련 문헌수집과 전문가 의견조회를 위해 문화재청을 방문,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문화재 활용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보존효과를 거둘 수 있는 문화자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친 현지답사를 거쳐 주민들과의 의견을 청취하는 동시에 관련 기관단체를 통한 의견 수렴도 병행하였다.

지방에 산재된 지역문화재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재 보존 틀을 넘어 지역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자치단체에서 주도적인 보존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시민생활의 일부로서의 활용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문제해결을 구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문화재 보존을 전제로 한 활용방안을 도출하여 시민생활과 문화재보존이 상호 보완적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새로운 문화재 보존 패턴을 정립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범위, 그리고 선행 연구와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문화재 보존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최근 대두되는 문화재 활용과의 상관관계 및 포항시 문화재 활용 및 보존 방향에 대하여 조사했다.

제3장은 지역문화재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관리 행정조직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또한, 문화재 보존을 전제한 주민생활과 문화재 활용의 조화를 주도해야 할 포항시의 문화재 행정조직과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도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하며,

제4장에서는 도시개발의 걸림돌로 홀대받고 있는 지정 문화재에 대하여 역사 문화공간 및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이 가능한 문화자원과, 문화재를 활용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문화자원을 조사하였으며, 동해안 해양 자연사 자료와 지역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 그리고 흩어져 보관중인 민속자료 등

을 종합적으로 보관 전시할 수 있는 종합박물관 전시자료를 조사함으로써 박물관 설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포항시의 주요문화재 보존을 전제한 활용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하여 보았다.

제6장에서는 글을 맺으면서 문화재보존을 원형보전에 치우쳐 최소한의 인공적 가미로 문화재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기존의 보존관행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방 문화재에 대한 주체성을 가지고 보존을 전제로 한 적극적인 문화재활용을 강조하였다. 이는 도시개발과 문화재 보존의 상호 보완적 작용, 지역주민 향토애 결집,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 확대 등의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향적 문화재 보존정책들이 행정실무에 적용되어 발전적 방안으로 성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며 그 성과에 따라 타 자치단체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보존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여기까지에서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연구의 한계에 대한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3. 연구 동향과 필요성

1. 선행연구 검토

문화재 보존에 대한 선행 연구 성과를 보면, 대개 재질별 문화재에 대한 보존방안과 개별 문화재에 대한 보존대책을 연구한 것들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관광자원으로서 문화재를 활용하는 연구 성과는 비교적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문화재를 보존은 무시한 접근으로 경제적 활용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문화재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문화재 보존을 전제로 하면서 시민생활속의 휴식공간 및 역사교육장으로의 활용과 나아가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고자하는 방안에 대한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와 유사성이 깊은 선행연구들을 요약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박종수(1996)⁸⁾는 1970년대 중반이후 성장위주의 경제개발 정책으로 지역간, 도농간 격차가 심화되어 농어촌과 도시지역은 경제적으로 황폐화되어 지역주민들은 생활의 질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전제하고, 최근 지방화, 국제화시대를 맞이하면서 문화의 민족주의가 형성되어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적 자원의 개발이 요구되는 국내외적 조류에 부응하고 또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지역의 소외감을 제거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잠재된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문화적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낙후되고 농어촌지역이나 도서지역의 활성화 가능성 제시를 위하여 진도를 연구대상으로 삼아서, 진도와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성화시켜 지역개발이란 목표에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문화자원을 관광 자원적 가치에서 분석, 접근하는 동시에 경제적 가치에 의하여 악용되어 문화재 보존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문화재가 훼손 파괴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으며, 문화재가 말하고자하는 본질을 오도할 수 있을 것이다.

김근용(1999년)⁹⁾ 1996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증대, 관광시설 확충을 위하여 관광지 개발사업을 역점시책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관광 산업은 산업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

8) 박종수 - 진도 문화적 관광자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성신여대 박사논문,

9) 김근용 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한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망하고, 최근의 관광성향은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흥미위주의 관광에서 벗어나 지방 고유의 문화관광이 조화된 테마관광, 문화관광의 형태로 변하고 있다고 말한다.

문화유적에 대한 관광자원의 중대성이 증대하게 되면서 각 지역 특유의 역사, 문화적 환경을 도시지역 개발에 활용함은 물론 이를 산업과 연계시켜 국가 지역의 관광관련 상품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나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문화자원을 토대로 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문화자원을 기초로 한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시도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고 보이나, 자칫 관광적 측면에 치우친 나머지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문화재적 가치가 변형 왜곡되는 우려를 낳을 수가 있다

그리고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각종 문화재는 해당 지역민들의 삶의 숨결이 배어 있는 만큼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 속에서 보존되고 활용되어야 함에도 본 연구에서는 관주도의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에 치중하면서 주민들의 외면 속에서 추진됨으로 해서 계획 자체로서 끝날 수도 있다.

류종열(1997년)¹⁰⁾ 1997은 국민의 생활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경향이 대두되었다고 전제하고 이런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여가활동은 현재 우리의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통수단의 발달과 소득수준의 변화는 관광을 현대의 필수적인 여가수단을 등장시키게 하고 있다. 또한 물질문명의 발전에서 오는 인간성 상실을 회복하려는 수단으로서 관광활동은 저소득층, 즉 일반대중에 이르기 까지 확산되어 대중관광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관광 대중화 추세에서 관광의 중심지이면서 유네스코 10대 관광지로 선정된 경주를 중심으로 문화적 관광자원을 분석하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10)류종열, 경주지역 문화적 관광자원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신라천년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고도로서 풍부한 문화자원과 신비로운 전설이 담긴 고장으로서 도시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귀중하고 훌륭한 우리문화의 보고이며 유네스코 10대 유적지에 선전된 만큼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민족 문화의 정수이다.

하지만 경주를 찾은 관광객 대부분은 실망을 하게 된다. 단조로운 관광코스, 안내판 부족, 유원지와 유적지의 분리에 따른 문화관광에 어려움이 있다. 실제 석굴암과 불국사 등 몇몇 명소 외에는 관광자원으로서 제몫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①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경주시의 계획성 있는 추진계획에 의하여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으나 실제 황폐화되고 방치된 황룡사지나 월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복원과 정비가 필요하다. ②누구나 쉽게 원하는 문화재 현지를 찾을 수 있는 안내판 및 표지판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문화유적지 관광정비와 동시에 유적지 주변에 휴식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경마장 예정부지를 신라의 생활문화를 밝혀주는 신라촌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신라문화를 접하게 되는 동시에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④ 황폐되고 방치된 많은 문화유적을 복원 정비하여 다양한 문화유적 관광코스를 개발해야 한다. ‘ 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문화자원 관광자원 개발방안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총괄적인 면에 치중하다보니 발전방향을 제시하고도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경주를 지역적 범위로 삼아 지역적 특색 있는 문화적 관광자원 개발이란 것에는 적극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를 관광자원 개발에 치중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바, 볼거리 위주와 단기간의 졸속한 문화재 복원 정비에 따른 문화재 훼손 및 문화재 본질과 떨어진 방향으로의 복원 정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며, 전면적인 문화재 보수 정비는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적 뒷받침이 어려운 현실에서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정기정(2000년)¹¹⁾ 은 예산군의 지리적인 여건상 경유형 관광의 문제점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자원들을 관광과 접목시켜 고급관광 자원화 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문화 주도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므로써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예산군의 불교유적과 고건축, 민속, 지역축제, 자연환경, 민간문화단체를 중심으로 한 문화자원을 소재화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①“해설이 있는 명당 현지 답사여행”, “백제의 불교유적 답사” 등의 관광코스 개발을 위하여 지역 여행사와 행정, 그리고 지역의 풍수연구가들이 모여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특별 기획 상품을 만들어 가는 지역자원의 독특한 관광매력화가 필요하다.

②지역예술의 주체를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음악, 조각, 회화, 판화, 도예 등 다양한 그룹의 지역예술주체의 체계적인 육성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는 방안으로 김정희, 일랑 이종상, 사물놀이 이광수 등 지역예술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이미지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③지역의 공연문화 활성화와 향토문화유산 발굴재현 등 지역문화 전승 보존을 위한 순수민간단체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권장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역의 민속놀이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발굴된 놀이의 지역적 특성 파악과 재현을 통해 현대적 이미지로 재구성하여 놀이 참여자나 관람객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 전승하여 하며 이는 순수 민간문화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선행 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관광자원을 극복하고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11) 주9)정기정, 예산군 문화자원의 관광개발을 위한 대응방안 연구, 공주대 석사논문, 2000

④문화재 관리예산 재정 확보 및 그에 따른 민간문화단체의 체계적인 지원, 지역예술주체 확충 등 행정의 문화 마케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일정한 지역적 문화 형성기반을 가지고 있는 예산군의 지역 문화자원을 소재로 하여 관광자원 화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 제고에는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에서 강조하였듯이 관광적 가치 기준에 따라 문화재가 도구적 수단으로 전락하게 됨으로 해서 귀중한 문화재가 훼손, 파괴는 물론 문화재가 표현하는 고유한 가치가 왜곡, 변형 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또한 전체 지역민들의 참여를 외면한 관광객 위주의 문화 관광은 이벤트적 일회성 행사로 그칠 수 있다.

정원재(1994년)¹²⁾ 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 활용의 증대, 그리고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관심은 문화적 욕구의 충족을 정부로부터 요청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대도시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각종 건설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하여 우리 조상들의 발자취와 귀중한 문화유산이 조사나 연구분석 없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 및 그 주변지역에 있어서 문화재보호의 필요와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을 보다 잘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현행 문화재보호행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행정적 정책적 발전방향을 대구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저 문화재관리제도 정비를 위하여

①곳곳에 산재한 매장문화재를 비롯한 유적에 대한 정확한 지표조사와 동시에 보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라 중요한 문화유적에 대하여는 지정문화재로 보전 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개발과 관련한 개별법규에 명문화하여야 한다.

②시도문화재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증원하는 동시에 문화재보존에 대한 전문

12) 주10)정원재, 대구시 문화재보호행정의 실태와 발전방향, 경북대 석사논문, 1994

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며, 문화재전문위원들의 인원보강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적극적인 조사연구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도시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매장문화재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 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도 매장문화재 등 문화재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보존 내실화가 요구된다.

다음 문화재관리 행정의 개선을 위해서

①현재 문화체육부의 외국으로 되어 있는 문화재관리국을 문화재관리청을 독립시키는 동시에 지방문화재연구소의 기능 확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시도에 문화재계를 문화재관리과로 확대개편하고 2개계 내지 3개계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각시군에는 중요한 유적이 많은 지역에는 문화재과 설치가 급선무이며, 여타 시군에는 문화공보실을 문화과와 공보실로 분리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②문화재관리업무가 전문성과 계속성을 요구하는 분야인 만큼 학예직 또는 별정직의 충원이 필요하며 정부 및 시도, 시군 간 활발한 교류확대, 교육, 파견근무, 해외연수 등 능력발전과 전문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③매장문화재 발굴조사단이나 문화재보수전문기구를 시도 단위로 편성하여 하여 매장문화재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문화재보호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굴조사로 인한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동시에 국토개발이나 도시개발에 따른 발굴조사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④문화재 보수가 필요한 경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보수를 하려고 하면 6개월에서 2년까지 정도 소요되는 동시에 문화재의 파괴와 보수비의 막대한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필요시 언제든지 사용케 할 수 있는 긴급문화재보수비나 발굴조사비를 계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이밖에도 문화재에 대한 중장기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에 걸친 보수방향과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문화재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중요한 문화

유적에 대한 사적공원의 개발이나 문화재 전시관, 무형문화재 전승회관등의 문화공간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재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의 함양면에서 보고자 한다.

문화재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애호운동전개 없이는 문화재보호관리의 궁극적인 성공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문화재 알기 및 지키기, 가꾸기 운동도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문화재보호협회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재보호 및 보존 그리고 보급선양을 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도 문화재보호단체의 구성 및 활동이 가시화되어야 한다.

문화재 보호제도의 정비 및 관리행정의 개선 그리고 문화재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이 함양을 기초로 하여 대구시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관리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저 대구지역에 대한 정확한 문화유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급격한 도시화 진행으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문화재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대구 주변지역에 대한 문화유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보존대책 역시 대구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도시화 진행에 따라 대구로 편입 될 수 있는 문화재가 많으며, 그 문화재에 대한 향유기회는 대구 시민들이 될 수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광역을 관할하는 경상북도에서 볼 때는 대구 주변지역에 대한 문화재 중요성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 및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먼저 지정하고 연차적으로 매입과 보존 및 개발을 병행해야 한다.

다음, 경성감영과 대구읍성문의 부분 복원을 주장한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영남지역에서 차지하는 지리적인 중요성이 인식되어 경성감영이 위치하게 되면서 대구의 역사적 중요성이 부각되며 영남지역의 중심도시로 성장하여 오늘날 대도시로서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경성감영을 복원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 영조 12년에 축성된 대구읍성의 옛 모습 그대로의 복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사대문의 부분복원을 통하여 경상감영 정비와 더불어 고도 대구의 면모를 일신하자.

세 번째로는 달성의 정비를 주장한다.

사적62호인 달성은 일제시대 동물원 및 시민교육장으로서 한낱 시민공원으로 인식되어질 뿐 사적지로서의 중요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달성은 일반적인 토성들과 달리 임진왜란 때까지도 성곽으로 사용되어온 대구의 2천년의 역사를 대변하고 대구역사의 산실이며 시발점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자원을 도심의 문화공간, 휴식공간으로 보존 관리하여 사적공원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네 번째로는 불로동 고분군의 정비를 들고 있다.

불로동 고분군은 4-5세기경 삼국시대의 지역일대의 토착지배세력의 집단묘지로 추정되어 지는데, 경주의 대릉원처럼 고분공원으로서 시민들의 공간으로서 더없이 좋은 지역이다. 현재 이 지역에 대한 공원계획은 유원지적 공원개발계획으로 사적공원개발계획으로 대체 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부인사지의 정비이다.

초조대장경을 보관한 사찰인 부인사에서 최근 신라시대의 건물지와 축대가 발견될 만큼 긴 역사를 가진 사찰이다. 이러한 소중한 사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비와 문화재 지정 등의 보존대책이 요구된다.

여섯 번째 사적공원의 개발과 전시공간 확충에 치중하여야 한다.

문화유적이거나 그 주변의 과도한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시민들과 보다 친근한 문화재로, 그리고 역사성이 식든 공원개발을 위해서 사적공원으로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상당부분이 파괴된 검단공원에 대한 보존대책과 아울러 각지에 산재한 토성들에 대한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이들을 활용한 휴식공간 확보 면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전통 문화공간 확보와 토속문화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문화재 보존에 못잖은 문화재 계승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의 발굴과 정비 및 지원육성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전통회관의 건립과 시민이 함께하는 화합의장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의 보전이다.

유형문화재 그 자체보다도 우리 조상들의 삶의 장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요 또한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는 것도 문화재보존의 한 맥락이라 전제하고,

도심에 가까이 있어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팔공산과 금호강 등의 자연환경에 대한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아울러 도시의 경관보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도심의 구릉도 사적공원의 개발로 역사성을 기미한 보존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글에서도 역시 대구지역이란 지역적 범위에서 지방에 산재한 문화재에 대한 보존을 활용방안과 연계시킨 연구결과에 대하여 적극 입장을 같이 하는 바이나, 제 방안에 대한 원론적이고 포괄적이어 막연하다고 볼 수 있다. 좀더 실현 가능한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함이 필요하다.

2) 연구의 필요성

우리 주변의 산과 들, 돌맹이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선조들의 일이 스며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박물관이다’라고 쓴 어느 학자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우리 국토의 어느곳을 가더라도 유형무형의 문화유산들을 만나게 된다. ¹³⁾ 이렇게 많은 문화재들은 경제개발과 국토개발의 국가목표와 문화재 보호에 대한 후대들에 인식부족에 따라 알게 모르게 파괴 멸실되

13)정원재. 대구시 문화재보호행정의 실태와 발전방향. 경북대. 1994 1페이지.

고 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행정관서의 문화재의 보존관리 분야는 문화재의 지정 및 지정해제,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문화재의 보수정비 등을 말하며, 그 이외에 건조물, 민족자료 및 동산문화재의 화재예방, 충해예방, 재해예방, 도난방지 등 부수적인 업무가 있다. 특히, 최근의 각종 개발의 증가에 따른 문화유적 또는 매장문화재가 멸실, 훼손, 손상되는 사례가 있어 개발과 문화재 보존 간에 새로운 갈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따라서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사후관리와 제도개선등 문화재보호의 큰 몫을 담당하는 것이다.¹⁴⁾

이러한 도시권 학장에 따른 개발과 문화재 보존의 갈등 사이에서 매장문화재 훼손과 더불어 지정 문화재들로 하여금 도시발전 저해의 원인으로 판단된 문화유적들은 지정해제 등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 문화유적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포항시 문화재 보존 관리 실태와 이에 따른 접근 필요성을 짚어본다.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실태

최근 문화재 보존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목소리는 크지만 성과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보존에 대한 중요성에는 동감하고 있으나 너무나 방대한 개별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나 보급선양 등의 성과는 그다지 크지 못하다.

문화재 보존에 대하여 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리상황을 보면, ①각종 개발공사에 의한 발굴허가와 관련된 관계법에 따른 수동적인 행정처리와 ②이들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의 귀속조치 절차수행, ③현재 관리 중인 대상유물의 최소한의 현황파악 ④정기적 관찰 등에 수동적인 관리에 급

14) 주11) 심재선, 문화재 행정관리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서울, 1998.

급해 하고 있으며, 또한 이나마 중앙부처에서의 획일적이고 상의 하달식의 처리기준에 의한 문화재 업무처리가 전부인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출토되는 매장문화재에 비해 보존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고, 수장고는 넘쳐나며, 각 지역개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지정문화재는 물론 산발적으로 발견되는 유물 유적들은 지역민들에게 외면당하면서 암암리에 훼손되고 파괴되는 문화재 수난기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물론 문화재보호법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차원의 인력 보강과 최신 장비 지원, 박물관 건립 등의 방안을 강구한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문화재 보존에 대한 주체의식과 보존의지가 결여된 방안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친다고 볼 수 있겠다.

○포항시에 잠재된 문화유산

포항시 영일만은 한반도의 꼬리로 유명하다.

포항시는 위치상 영일만을 끼고 내륙과 해양문화가 상존하고 있으며, 고도 경주와 연접하여 신라문화에 대한 상당한 영향을 받은 곳으로 많은 신라시대 문화유적이 즐비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발견되고 있는 장기면 산서리 구석기 주거지 유적 <도 1-1~1-4, 장기면 구석기 유적>을 비롯하여 흥해 대련리, 초곡리 일대 및 이동지역의 대단지 청동기 주거지 발견, 남구 인덕동 도로공사구간 발굴현장에서의 청동기시대와 원삼국시대에 이르는 출토유물 등의 선사시대 유적과 주상절리로서는 국내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신생대 3기 분출화석인 달전리 주상절리 등의 많은 자연사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국 유일의 등대박물관이 소재하고 있고, 해와 달의 고장으로 연오랑과 세오녀의 신비스런 일월신화가 서려있는 일월지를 가진 성스러운 곳이기도 하며, 아시아 최대의 철강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한국 현대 철강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철강박물관이 개관되어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해안선을 따라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관광교통로를 비롯하여, 국내 최초의 호미곶 풍력단지, 동해안 최대 재래시장인 죽도시장, 포항공대 등은 포항의 관광자원으로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역사문화재와 자연사 자료, 그리고 이 지역만의 설화가 서린 유적지 등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이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활용은 고사하고 개발에 밀려 훼손 파괴되는 실정이다

○포항시 문화재 보존실태

포항은 교통발달과 산업성장, 첨단산업 등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역사유적 유물들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경제발전에 주력한 나머지 시민휴식공간의 부족, 생활환경 악화 등의 사회 기능적 병폐를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역사문화재는 시민들의 무관심속에 방치, 훼손되는 실정이다.

경상북도지정문화재인 흥해 남미질부성은 흥해읍 소재지 남쪽에 위치하면서 포항과 접하고 있어 흥해 도시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재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민원발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내 무분별한 훼손과 쓰레기 방치 등으로 문화재로 하여금 도시민관저해 및 주민들의 생활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415호 달전리 주상절리는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큼의 문화재적 가치는 인정받았으나 활용은 커녕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어 지정이후 보존관리 실족으로 흉물스러운 문화재 보존관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오천읍 고현성 인근에는 호동 쓰레기 매립장 확장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서 원삼국시대의 대단위 주거지와 고현성으로 인하여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고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 가치 저하에 따른 민원 및 매장문화재로 인한 도시개발과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동해안에서 군사요충지로서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매년 일정액의 국가 예산으로 들여 보수를 추진하고 있는 장기읍성은 원형보존에 치우쳐 있을 뿐, 진정 문화재를 보존하고 가꾸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조상들의 예지와 숨결“을 가정, 학교, 사회교육을 통하여 널리 일깨워져야 한다는 교육적 가치로서의 활용을 경시하고 있다.

○문화관광을 위한 포항의 접근성

포항을 환동해권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동해안을 거슬러 올라가는 철도 관광을 가능케 하는 동해중부선의 개통은 또 다른 포항시의 관광 잠재력을 키워주고 있다. 2010까지 공사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해남부선의 완공은 부산 대구 강릉 등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동시에 국제 관광도시 경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을 포항으로 유치할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비한 문화적 관광자원의 개발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04년 12월에 개통된 포항-구미간 고속도로는 대구와 포항을 동일한 생활권으로 엮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구간 고속전철과 연계하여 서울 포항은 3시간대 집입이 가능하여 철로를 통한 일일 생활권으로 변모되었다. 이밖에도 동해안 7번국도 4차선 확장공사 추진, 포항 구룡포간 4차선 확장공사 완공,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등 관광객 접근성은 매우 용이한 편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도로교통망의 준비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울 및 제주도 등의 국내 항공편의 증설로 더욱 접근성은 용이하게 되었으며, 울릉도 관광의 편이를 위하여 포항여객선터미널의 확장공사를 마쳤고 관광객의 수요에 맞는 여객선의 적절한 운영 등 관광포항의 기반은 조성되었다고 본다.

○ 연구의 필요성

국보나 보물급 가치가 있어 막대한 국고를 투입해서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할 문화유적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문화관광 시설이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하다. 사례에 따라 문화유산은 단순한 보존보다 주민과 관광객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더 안전한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여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비지정 문화재의 경우 활용이 최선의 보호수단이다. 15)

우리 주변에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박물관, 역사적 건축물, 민속음악, 예술 무용 등 문화적 매력물이 풍부하며 실물의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민족의 생활 속에 살아 숨 쉬면서 면면히 내려오는 전통 즉 설화, 민담, 미풍양속 및 민속놀이 문화는 훌륭한 문화유산이다.16)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시민들의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패턴이 변화될 것이다. 특히, 가족단위 및 체험위주의 여가 생활 및 자기개발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현대 레저 붐의 확산과 문화유적을 활용한 여가선용을 위한 행정적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비하여 가족단위 중심의 여가 공간 확충, 체험위주의 스포츠 레저시설 확충, 소외계층에 대한 여가활동 참여, 다양한 관광상품개발, 행정조직 역량강화 등의 시 차원에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포항은 포항제철을 중심으로 발달된 공업도시로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열악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주민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은 공원법이 권장하는 3㎡에 못 미치는 2.8㎡로서 서울 12.8㎡, 부산 5㎡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치다. 외국의 경우

15) 김성진. 고가 종택 전통마을의 보전적 관광자원화 방안. 한국 관광연구원. 2001. 23페이지

16) 김홍운 한국전통민속극의 관광 상품으로서의 개발연구, 성곡논총 제2편, 167페이지.

영국 비어엄의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은 33.4m²로 포항시의 12배에 이르고 있고 독일 베를린은 24.53m²에 이르고 있고, 프랑스 파리는 17.88m² 미국 뉴욕은 14.12m²이다.¹⁷⁾

포항의 시가지내에는 환호 해맞이 공원이 있지만 공원으로 조성된 많은 부분들은 임야로 형성되어 있고 도심 북쪽으로 치우쳐 있어 수용능력과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휴식공간을 찾는 시민들은 인근 경주나 부산, 울진 등으로 떠나가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포항은 다양한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고 관광자원과 시민 휴식공간 부족 그리고 관광객 접근성 등이 제반 여건을 적절히 조화시켜 활용을 통한 보존을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보존대책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파괴되는 동시에 도시발전의 장애물로 천대받는 실정에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일부분으로서의 생활문화재로 거듭날 수 있는 문화재 보존을 전제한 활용을 조화롭게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강구하여야 한다.

포항시의 제반 문화재 관리 현실과 도시환경 그리고 관광기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원활한 문화재 보존과 시민생활의 공존을 기대하는 ‘문화재를 보존을 전제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17) 박진홍, 매일신문, 2002

II. 보존과 활용을 병행한 문화재 관리 추진배경

문화재는 한 민족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최고의 정신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전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문화적 자산이다. 18) 정부가 1997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하여 민족문화의 열인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정책지원 등의 분위기를 조성, 정착하고 문화유산의 해를 기리기 위하여 ‘문화유산현장’을 제정 공포하여 문화재 관리의 좌표로 제시하였다.

전 인류가 함께 공유해야 할 문화적 자산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문화재 보존은 최소한의 손질 차원에서 최선의 보존으로 일관되어 왔으나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아 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고조와 더불어 문화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보존관리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에 대한 보존의 역사적인 추진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활용과의 연계필요성을 강조하고 필요성에 따른 포항지역의 문화자원 배경을 제시한다.

1. 보존의 역사적 배경

문화재 보존은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부터 시작되었고, 중세를 거쳐 14세기 이후로 전개된 르네상스 시대에는 예술품 애호와 더불어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르네상스 당시 귀족들의 예술작가들에 대한 후원과 문화예술품에 대한 수집으로 창작활동과 더불어 수집품에 대한 문화재 보존에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때의 보존은 당대의 작가들에 의한 보수, 수리 차원의 보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리방법은 보존 처리 후 얼마가지 않아 문화재의 원형이 변경되는 등 그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19세기 초반에는 과학적인 보수방법

18) 정문교, 문화재 행정과 정책, 제1부 문화재 관리행정, 2000, 120페이지

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문화재 자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의한 보존방법이 팽배해지면서 옛 모습으로의 복원에 치우친 과학적 보존방법이 문화재 원형의 퇴색된다는 새로운 보존이론이 대두되게 되면서 양자 간에 대립으로 문화재 보존에서 획기적인 발전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즉, 문화재에 대한 보존활동에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인류가 보다 활발하게 문화재 손상에 개입하여야 한다는 이론과 문화재의 현 상태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여야 한다는 보존이론이 양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양자 이론에 대하여 중립적인 보존이론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 이론이 현재 강조되고 있는 역사 문화 환경조성과 깊은 관련 깊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재는 역사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증거물로서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존중해야 하며, 어떠한 변형을 가해서도 아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수리나 복원, 첨가를 해서는 안 되며 대신 보강하는 차원에서 보존이 이루어 하며, 불가피하게 첨가해야 할 경우에는 조사 자료에 바탕을 두고 첨가된 부재는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인문학적 접근의 하나로서 세계 각국이 현대화를 겪으면서 보존에 대한 큰 전제 속에서 활용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조명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재보호가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크게 활성화 되었으며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하고 있다.

즉, 보존에 있어서 보존대상이 되는 문화재의 역사적 미학적 가치와 더불어 활용의 문제를 이론적, 현실적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적합한 보존방법을 결정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문화재 보존을 위한 보존 자체의 박제된 형태의 보존에서

벗어나 문화재가 주는 역사적 의식을 시민생활에서 활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보존방법이야말로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보존과 활용의 연계 필요성(역사 환경 측면)

최근 문화재 유물 유적 등 개별 문화재 자체로서의 성격이 좀더 넓은 의미로 문화재 행태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문화재 유물 유적이 '점'으로서의 성격이 문화재가 속해있는 지역 등 집단에 이르는 '면'으로 확대되었고, 이것은 다시 그들의 역사의식과 문화적 상징을 포용하는 '공간'적 차원의 문화재로서 재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⁹⁾

다시 말하자면, 문화재는 '그 원형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니고 있던 원래의 환경도 보존하자는 것'으로 이것은 문화재의 보존개념이 '점'에서 '면'으로 즉, 골동품적 보존에서 역사 환경적 보존이란 차원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역사 문화 환경은 그 시대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라는 개념 속에는 전통이라는 부분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란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여유를 주며 또한 다른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힘을 축적시켜주는 귀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는 그것만의 고유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경제적인 수치로 값을 따질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문화재는 그것이 갖는 유일성 때문에 한번 훼손되거나 변질되면 영원히 회복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보존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보존이 강조된다고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보존을 위한 보존 자체에 치중하다 보면 문화재가 주는 가치와 교훈을 얻을 수가 없다.

문화재가 주는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전통을 후대에서 배우고 그에 대한 교훈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존을 통한 문화재의 체험과 이를 바탕으로

19) 문화재청, 문화유산 포럼 I, 역사 문화환경과 도시개발, 1999, 7페이지.

한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문화재보호정책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은 보존과 활용이 중요한 두 축이지만 현행 정책은 동결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보존에만 치중하고 있고 문화재의 활용에 대해서는 인식수준이 낮고 관심조차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20)

최근의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세의 확산에 따라 교외지역에 위치해 있던 역사적 문화 환경이 점차 도시 내 지역으로 편입되고 있는 추세로서, 이들 역사문화 환경이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명목으로 방치되고 훼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문화재에 대한 경제적 가치만을 가지고 훼손하는 현 도시개발 정책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문화재의 역사적 환경과 조화되는 도시개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들 문화재를 시민들이 적극 체험하고 활용하는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문화재 보존도 중요하지만 보존 자체만을 위한 보존에만 치중할시 비지정문화재들은 물론 지정문화재들까지도 경제적 가치와 저울질 되어 문화재 자체가 파괴되는 우려가 있으므로 역사문화 환경과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조화되는 활용과 보존에 병행하는 문화재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3. 포항시 주요문화재 활용과 보존 관리방향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나 선조들의 손길이 닿은 역사 문화적 재산들이 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문화재가 산재하고 있다.

20) 김성진. 고가 종택 전통마을의 보전적 관광자원화 방안. 한국 관광연구원. 2001. 23페이지

우리는 이들 문화재에 대한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문화재의 가치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문화재가 주는 값진 교훈을 터득하여 삶을 윤택하고 여유 있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며, 향토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한 이들 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활용적 측면에서도 적극 개발되어야한다

필자가 포항지역에 대한 문화재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재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포항을 둘러싼 영일만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재가 월등하다는 것을 말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든 문화재가 산재하고 있지만, 각 지역에서도 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가치와 상징성을 부각시켜 조상들의 삶의 예지를 느낌으로서 향토애를 가지게 되고 나아가 관광 상품화시킬 때 활용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영일만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포항시는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해맞이의 고장'으로 동해안의 수려한 경관을 보유한 아름다운 고장이다. 또한 세계 제일의 철강 회사인 포항제철이 소재하고 있는 철강도시이며, 포항공과대학과 방사광가속기, 포항 테크노 파크,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함께 자리 잡아 21세기 첨단 미래 산업을 열어가고 있는 과학기술도시이기도하다. 그리고 현재 건설중인 영일만 신항과 현대중공업단지는 21세기 환태평양 시대로의 한 차원 더 높은 도약을 약속하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이다.

그리고 찬란했던 천년고도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와 인접한 영일만지역은 영일만의 바닷가와 형산강을 끼고 있는 지리적 위치로 보아 일찍부터 사람이 살았을 가능성 보인다. 주변의 곳곳에서 무문토기를 사용한 청동기시대의 문화흔적이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흥해읍의 용곡동, 흥안동, 달전동, 대송면의 호동, 동해면의 도구동, 흥해읍의 흥안2동 등의 선돌 그리고 석부, 석도, 석검, 석촉, 반월형석검, 방추차, 연석(맷돌) 등 다양하게 발굴되는 유물 등

은 청동기시대부터 인류가 서식하며 문화생활을 영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곳곳에 산재한 지정문화재를 비롯하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문화재 가치가 인정되는 많은 수의 비지정문화재, 그리고 최근에 내륙에서는 국내 유일한 천연기념물 국가지정문화재 주상절리 및 신생대 3기의 조개화석 등 지리적인 특성상 해양과 접하고 있어 화석 등 자연사 관련 자료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적 특성을 가진 문화재를 지역개발과 상호 조화될 수 있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문화재를 보존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문화재를 대하는 현 실정은 매우 낮은 인식수준에 머물러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화재관련 연구 및 보존처리 등의 제반사항 노력들은 관련분야의 학계나 각급 박물관 그리고 문화재청의 획일적인 행정업무처리 등으로 문화재 보존에 앞장서야 할 지방정부의 관심과 주민들의 보존에 대한 의식 수준이 저급한 실정이며,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구제발굴과 발굴에 따른 출토문화재에 대한 보존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문화재를 활용,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문화재를 보존하는 동시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을 뿐, 포항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현 시대에서 문화재는 단순한 보존에만 그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정책 수준에서 포항 또한 예외가 아니다. 그나마 포항지역에 산재된 각종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지역 내 향토사가 및 관련 시민단체, 그리고 각 문중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말하자면, 동대해문화연구소에서의 「영일만지역의 지석묘에 대한 연구」와 「포항 3개 지역 문화유적지표조사서」 등을 발간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 문화재에 대한 꾸준함 관심을 갖고 각종 문화재 훼손에 대한 제보를 하고 있

는 사학자 등을 들 수가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며, 자료 자체로서 사장되고 있는 실정으로 활용 면에서 극히 미흡한 편이다. 또한 이들 자료가 있다고는 하나 행정관청이나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활용되지 못할뿐더러 자료 내용이 산만하고 적용기준이 없어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비교적 매장된 문화재가 많은 지역에서도 무분별하게 건축행위를 하거나, 개발 도중 문화재가 발견되면 알게 모르게 파괴하여 버린다던가, 각종 출토유물 및 소장유물에 대하여 보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비전문직에 의하여 많은 유물 유적들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 포항을 비롯한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행정의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제의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행사와 시민들의 삶의 여유가 생기고 여가시간이 증대와 더불어 생활의 질이 향상되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되어 활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문화재 행정조직 내에서도 활용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이 보존위주의 소극적 관리정책이었다면에서 이제 보존을 위한 보존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활 속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재 활용의 적극적인 관리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과 시민들의 문화재 향유 욕구에 대한 기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포항의 지역개발의 잠재적 성장가능성과 각종 문화유산들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조화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환동해 중심지인 포항의 미래상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지역민들이 향토애를 고취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것이 포항지역의 문화재의 활용을 통한 보존방향이라고 본다.

문화재를 문화재 자체로만 보존하기보다는 문화재를 보존하는 동시에 활용

하는 것이 최고의 보존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문화재를 시민생활속의 문화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문화재 보존과 관광자원 등으로의 활용을 병행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문화재 보존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활
용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실에서 활용과 보존의 연계 필요성과 함께 포항지
역의 문화자원 형성배경과 관리현황을 검토해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포항지역에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문화재를 보존하
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적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포항시
문화재 관리행정조직 현황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III. 포항시 문화재 관리 행정기구 현황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의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문화재 관리행정의 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다.

최근까지 견지해 왔던 문화재 행정기능은 문화재 보존관리와 조사연구로서 중앙 행정 부서와 문화재 관련 기관 및 학술단체 등에 의한 제한적 행정행위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특성과 최근 사회가 복잡화 다양화, 전문화됨에 따른 복합성으로 문화재를 기존의 관리방식으로는 효율적인 보존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화재 향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본다.

이러한 문화재 관리현실에서 본고에서 주장하기 위는 제반 활용을 통한 보존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포항시를 중심으로 문화재 관리행정조직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1. 포항시 문화재관리 행정조직 실태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행정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있는 문화재청은 1961년 10월 문화재관리국에서 청으로 승격하고 정원과 소속기관이 늘어나는 등의 다소간의 발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화재를 일선에서 관리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 행정조직이야 말로 1968년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조정이후 거의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조직을 보면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문화재과를 두고 있는 곳이 없으며,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관광과, 문화공보과 등에서

다른 업무와 함께 행정을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 인력의 70% 정도를 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고 이 또한 잦은 순환보직 등에 따라 전문성을 기하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21)

포항시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다. 타 지방에 비하여 면적이 넓으며 각종 지역개발이 성행하는 포항시로서는 문화재 보존에 대한 행정조직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포항시 문화재 관리업무는 문화공보관광과내 문화예술담당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행정직 1명이 다른 기본업무에 추가하여 문화재 보존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후 최근 2005년 1월에 학예직 1명이 충원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일 것이다.

<표1>과 <표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문화공보관광과 내에서 문화재 관리업무의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문화공보관광과 사무 22개중 단 1개에 해당된다.

그리고 <표3>에서의 문화예술담당 사무 분장과 담당 공무원 보직현황을 보면 포항시의 문화, 예술 그리고 종교, 출판사관리, 문화원, 도서관, 문화의집, 민속 박물관 등의 총체적 관리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문화재 보호 관리를 추가하여 문화예술 담당내 4명의 인력이 전담하고 있으며, 당면한 주요업무 처리에 급급한 실정이다.

< 표1 > 포항시 문화공보관광과 사무분장 사항

- 1.공보계획 수립실시
- 2.시정계몽 선전 및 보도

21)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서울, 2002. 40페이지.

- 3.출판에 관한 사항
- 4.정기간행물 발행
- 5.언론 공보자료의 수집 편찬
- 6.문화재 보호관리
- 7.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 8.향교, 사찰에 관한 업무
- 9.공연자 및 공연장 지도감독
- 10.관광자원의 개발, 보호 및 관광홍보 안내
- 11.관광지 조성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12.반공계몽
- 13.관광레저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4.위생업소의 신고 및 인허가 및 지도
- 15.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에 관한 사항
- 16.문화예술축제 개발, 육성에 관한 사항
- 17.체육시설 설치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 18.시민체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9.시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지도감독
- 20.호미곶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21.문화관광축제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
- 22.경기장 관리 운영

< 표2 > 포항시 문화공보관광과 문화예술담당 분장사무

- 1.공연장, 공연자에 관한 사항
- 2.출판사, 인쇄소, 음반, 비디오업에 관한 사항
- 3.종교에 관한 사항

- 4.문화원에 관한 사항
- 5.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 6.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7.문화재지정, 해제 및 보호관리
- 8.매장문화재에 관한 사항
- 9.문화재 매매업소 지도관리
- 10.지정문화재 보존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11.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 12.전통사찰에 관한 사항
- 13.향토유적 보존관리
- 14.도서관, 박물관, 문화의집에 관한 사항
- 15.문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 16.문화예술축제 개발 육성에 관한 사항
- 17.미술 장식품 심의에 관한 사항

< 표3 > 포항시 문화공보관광과 문화예술담당 공무원 현황

부서명	직급별	정원	현원	주요업무
문화예술담당	행정6급	1	1	문화예술업무 전반
	행정7급	1	1	문화 및 예술관련업무
	건축7급	1	1	문화재 보수 및 미술품 전시 등
	학예직	1	1	문화재 지정 해제 보존관리
영일민속박물관	행정7급	1	1	박물관 관리
	기능직	1	1	"

문화예술담당에서 업무성격에 따른 비중을 보면 문화예술 진흥분야에 40%, 전통문화축제 10%, 출판사·인쇄소·음반 비디오 업에 관한 사항 15%, 종교분야에 10%, 문화원·도서관·문화의집 운영관리 15%, 문화재 보존관리

10%정도이다.

한편 영일민속박물관의 운영에는 행정7급 1명과 1기능직 1명으로 박물관 고유의 기능인 연구 및 교육적 역할은 상상도 못하며, 관람객 매표관리만의 인력도 부족한 형편이다.

이러한 관리 실태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문화재에 보급선양 등과 같은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 신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보수와 보존사업이 시시각각 추진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존대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2. 포항시 문화재 관리 행정조직 문제점 및 발전방안

현재 문화재보수공사의 대부분이 시군에서 발주하고 있으나 건축직 등의 기술요원이 절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문화재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조차 없는 경우가 많으며, 문화재 관리 업무는 전문성과 계속성을 요구하는 분야이다.²²⁾

포항지역뿐만 아닌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재 관리 행정조직의 문제점과 포항 지역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여 봄으로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도출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포항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초 자치단체 문화재 행정조직의 문제점

52만 포항지역 인구의 문화재 보급선양과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포항지역의 각종 지역개발 사업들로 인한 매장문화재 보존에 대한 행정적 대응, 지역민들의 문화재 사랑의식 고취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문화재 관리 행정적 과제는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먼저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는 문화재 관리의 우

22) 정병국. 우리나라 문화재 보수 정비문제 현황 및 정책대안. 정병국의원실. 2001. 60페이지

선순위를 지양하고 문화재의 보급선양에 중점을 두고 균형 있는 문화재 관리 행정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비해 지방정부의 행정조직구조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에 따른 대규모 공단부지 조성, 쓰레기 매립장 조성, 아파트 건립, 도로 개설 등으로 문화재 보존과 상충되는 지방행정이 지역이기주의와 지역민의 사유재산 보호를 중시하고 있어 문화재 지정해제 요구 등과 같은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바, 이들을 적절한 조화를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에 주력해야 할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또한, 각 지역에 산재한 문화재를 행정관서 및 일부 관련기관 단체의 보호 운동에는 그 한계가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지역민들이 지역 문화재에 대한 애호정신이 스스로 우리나라를 수 있는 각종 문화재보호 프로그램의 개발 시행이 추진될 때 문화재 보호의 근본적인 목적인 문화재 향수권 신장과는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의 문화재 관리행정으로서 문화재의 지정, 보수정비 공사의 설계 및 발주, 시공, 준공, 국고보조금의 신청, 집행 및 정산, 문화재 실태조사 등 문화재 관련 행정의 시발점에서부터 도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이르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시군구에서의 보편적인 문화재 행정의 실정을 보면 총무, 기획 지역경제, 건설 분야의 행정에 관심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으며, 문화재 관리 분야는 언제나 하찮은 저 단위 하류업무로 평가 받고 있으며, 관계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또한 보직이후 전출을 계획하면서 일시적으로 머물다 가는 자리로 인식하고 있는 한직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주로 보직을 받으면 1년6월정도 업무를 수행하다 다른 부서로 전출 가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비교적 업무경험이 짧은 공무원이 보직을 받게 된다. 물론 간부 공무원들도 이 분야의 행정업무에 전문 지식이 없

을 뿐만 아니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문화재 관리부서는 비인기 부서이며 문화재관리업무는 공무원들의 기피 보직이다.

○ 문화재 행정조직 개선방향

앞선 문제점에서 노정되는 사항들을 보완하는 것이 개선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개선방향을 짚어본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명의 직원으로 문화재 전반에 대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실정에서 최소한 1개 담당에 직원 2명, 총3명이상의 문화재 관리조직을 갖추는 일일 것이다.

다음은 현재 시군구청에서 임용권을 가진 문화재 관리직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임용으로 하여 발령범위를 넓혀 시도간의 인사교류와 동시에 중앙정부와 시도간의 유기적인 인사교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서 타 도시와 중앙부서의 문화재 관리업무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보직체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 주장하고 있는 제반 문화재 보존과 활용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전담기구 설치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인력부족 및 재정적 한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장기적인 개선방안은 이상향으로 그칠 수 있다고 보면, 단기적 방안으로 우선적 시행을 필요로 한다.

그 방안으로 현재 1명의 학예사 또는 학예사가 없는 지자체의 행정조직에서 문화재 관리부서에 발령받은 직원에 대한 인사 우대 및 장기 직무수행의 대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직무와 관련된 교육기관의 교육기회 제공과 더불어 하위직 직급에서 좀더 상향적 직급으로 인사우대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IV. 포항시 문화재 관리현황과 활용분야별 보존현황

이번 장에서는 포항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관리 기본현황과 문화재 관리자원 중에서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 가능한 자원 그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 종합박물관 건립시 전시대상 주요문화재순으로 4절로 나뉘어 현황을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하여 포항시의 「문화재 보존을 전제로 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란 주제의 포항시의 문화재 보존방향을 제시하여 보기로 한다.

1. 포항시 문화재 관리 기본현황

포항지역은 지리적으로 대양을 향해 항구를 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산강의 하구에 위치하고 있어 포항지역의 선인들은 옛부터 풍부한 해양자원을 이용하면서 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한편으로는 자연재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화유적을 비롯한 역사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특히, 고도 경주와 인접한 지리적인 특성으로 신라와 관련된 문화유적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과 접하여 있어 신라시대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왜구들의 침략에 따른 방어적인 역사의 흔적이 비교적 많은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진경산수화의 대가인 겸재 정선이 이 지방에서 불후의 걸작을 남길 만큼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다산 정약용, 포은 정몽주 등이 이 고장에 유배 생활을 하면서 남긴 역사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

지리적인 특성으로 잦은 외침에 방어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던 이 지역의 발자취가 이 고장 주민들에게는 남다른 끈기와 개척의 정신이 면면히 흘러 내려오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오늘의 세계적인 철강도시로 발돋움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고도 경주와 연결하여 신라의 많은 역사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신라시대부터 고려 및 조선, 일제침략 등의 외세침략의 역사 속에서 항상 방어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축성 등 외침에 대비한 역사 증거물을 가지고 있고 해양과 내륙이 접한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최근 자연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 지방에서 모감주나무 군락지를 비롯하여 달전리의 주상절리 같은 천연기념물들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포항지역의 문화재 보존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포항시를 비롯한 경북지방 시군별 문화재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4 > 경상북도 시군별 문화재 지정현황

시군별	학예 사	총계	국가지정문화재								경상북도지정 문화재						비고
			계	국보	보물	사적	사적 및 명승	명승	천연 기념 물	중요무 형문화 재	중요 민속 자료	계	유형 문화 재	무형 문화 재	기념 물	민속 자료	
경북도	4	1,457	525	52	252	93	3	1	57	8	59	546	282	25	123	116	386
포항시	1	44	10	1	4	1			2	1	1	18	6		10	2	18
경주시	3	292	200	31	74	73	2		3	1	16	52	29	1	18	4	40
김천시		42	16	1	14				1			12	7	4	1		14
안동시	5	247	73	4	34	2			6	2	25	113	55	5	14	39	61
구미시	1	54	11	1	6	1			2		1	20	7	1	7	5	23
영주시	3	81	32	7	19	3			3			31	19	1	4	7	18
영천시	1	67	22	1	16				1		4	33	25		5	3	12
상주시	1	64	13		11				2			37	13	1	16	7	14
문경시	3	46	13		8	1			3	1		18	13	1	4		15
경산시	1	21	10		5	3			1	1		8	4		4		3
군위군		25	5	1	3	1						10	7		2	1	10
의성군		39	8	1	4				2		1	18	14		4		13
청송군		33	7						5		2	15	7	3	1	4	11
영양군	1	40	6	1	2				2		1	15	6	1	3	5	19
영덕군	1	50	3		2						1	20	5	1	5	9	27
청도군		61	22		16				5		1	26	13	2	9	2	13
고령군	3	24	9		3	5					1	9	6		2	1	6
성주군	1	48	4		1	1			1	1		29	15	1	6	7	15
칠곡군		12	6		4	1			1			2			2		4
예천군		63	20		15				2	1	2	26	17	2	2	5	17
봉화군	1	69	14	1	7	1	1		1		3	28	13	1	2	12	27
울진군	1	20	13	2	4			1	6			1	1				6
울릉군	3	15	8						8			5			2	3	2

※자료제공 : 포항시 문화공보과(2005년 5월 현재)

포항시 지정문화재는 국보 1점과 보물 4점, 사적 1, 중요민속자료 1, 천연 기념물 2, 무형문화재 1건으로 10개 국가지정과 민속자료 2, 유형문화재 6, 기념물 10, 문화재 자료 18개의 도지정 문화재로 총 46개의 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 전체 문화재의 3%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국가지정은 2%, 경상북도지정은 3%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포항시 관내 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정 종류별 기관별 보호구역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체 40건 426,128㎡중에서 국공유지 7건 172,859㎡를 제외하면 33건 253,269㎡의 사유지가 문화재 지정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제한받고 있다.

국가 지정문화재 3건 34,038㎡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에서의 지속적인 보상 대책 추진계획에 의거 그나마 민원이 크지 않다고는 보이나, 도 지정문화재 30건 219,231㎡에 대하여는 확실한 보상대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원 제기가 다소 쉬운 점이 있어 지정해제 요구 민원 등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다.

< 표5 > 포항시 문화재 지정종별 보호구역 지정현황

지정종별	건수	지정구역(㎡)			보호구역(㎡)			비고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40	351,610	209,885	141,725	74,518	43,384	31,134	
보물	2				1,387	1,387		
사적	(2)1	95,003		95,003	29,933		29,933	
천연기념물	2	48,832	32,651	16,181				
민속자료	2				3,125	3,125		
유형문화재	6	11,435	11,435		7,552	7,552		
기념물	10	196,340	165,799	30,541	6,172	6,172		
문화재자료	16				26,349	25,148	1,201	

(자료: 포항시 문화공보관광과, 2005)

< 표6 > 포항시 지정문화재 지정기관별 보호구역 지정현황

지정별	계	지정구역(㎡)			보호구역			비고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40건 426,128	14건 351,610	10건 209,885	4건 141,725	26건 74,518	23건 43,384	3건 31,134	
국가지정	6건 175,155	3건 143,835	1건 32,651	2건 111,184	3건 31,320	2건 1,387	1건 29,933	
도 지정	34건 250,973	11 207,775	9건 177,234	2건 30,541	23건 43,198	21건 41,997	2건 1,201	

(자료: 포항시 문화공보관광과, 2005)

그리고 포항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상세 지정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포항시 문화재 지정현황

구분	지정별	문화재명	수량	소재지	관리자	지정일자	비고
국 가 지 정	국보 264호	영일냉수리 신라비	1기	신광 토성 342- 2	포항시	91. 3.15	
	보물 252호	보경사 원진국사비	1기	송라 중산 662	보경사	63. 1.21	
	보물 430호	보경사 원진국사부도	1기	“	보경사	65. 9. 1	
	보물1280호	오어사동종	1구	오천 향사리 34	오어사	98. 6.29	
	보물11-1호	보경사 서운암동종	1구	송라 중산 622	보경사	00. 2.15	
	사적 386	영일장기읍성	1,330m	장기 읍내 127-2	포항시	94. 3.17	
	중요민속자료 187호	모포줄	1쌍	장기 모포리	모포주민	84. 4.17	
	천연기념물 371호	모감주나무 병아리꽃나무 군락지	300본	동해 발산 산 13	포항시	92.12.23	
	천연기념물 415호	주상절리	1개소	연일 달전 19-1,2,3	포항시	00. 4.18	
	무형문화재 93호	전통장(김동학 31.1.24)		학산 248 - 4	김동학	89. 6.15	
경 상 북 도	민속자료 80호	애은당고택	2동	기북 오덕리 186	이동우	88. 9.23	
	민속자료 81호	사우정고택	2동	기북 오덕 306	이희태	88. 9.23	
	유형문화재 203호	보경사5층 석탑	1기	송라 중산 662	보경사	85.10.15	
	유형문화재 243	용계정	1동	기북 오덕 180	여강이씨	89. 4.21	
	유형문화재 249	칠포리 암각화	5기	홍해 칠포리 201	포항시	94. 4.16	

구 분	지정 별	문화재명	수 량	소재지	관리자	지정 일자	비 고
경 상 북 도	유형문화재 254	보경사 적광전	1동	산광 중산 622	보경사	90. 8. 7	
	유형문화재 290	상달암	3동	연일읍 달전리 429	경주이씨 대종회	95.12. 1	
	유형문화재 302	남성재	1동	대송면 남성리 465	연일정씨 영양공파	98. 4.13	
	기념물 11호	보경사 탱자나무	2본	송라면 중산리 622	“	74.12.10	
	기념물 20호	법광사지	22필	신광면 상읍리 976	법광사	75.12.30	
	기념물 21호	홍해 이팝 군락지	34본	홍해읍 옥성리 129	홍해향교	75.12.30	
	기념물 39호	호미곶 등대	1기	대보면 대보리 221	해운 항만청	82. 8. 4	
	기념물 57호	우각 향나무	1본	신광면 우각리 113	여강이씨	85.10.15	
	기념물 70호	입암서원		죽장면 입암리 산 21외	안동권씨	86.12.11	
	기념물 95호	영일 냉수리 고분	1기	신광 냉수 산78-3	포항시	94. 4.16	
	기념물 96호	남미질부성		홍해 남성리 101번지 외 53필	포항시		
	기념물 120호	영일 일월지		오천 용덕리 60	해병1사 단		
	기념물 149호	송라 화진리 해당화 군락		송라 화진리 90	포항시		
문 화 재 자 료	문화재자료 1호	연일향교 대성전	1동	효자동 407	연일향교	85. 8. 5	
	문 화 재 자 료 87호	홍해향교 대성전	1동	홍해읍 옥성리 132	홍해향교	85. 8. 5	
	문 화 재 자 료 88호	오어사 대웅전	1동	오천읍 향사리 34	오어사	85. 8. 5	
	문 화 재 자 료 201호	봉강재	1동	기계면 봉계리 562	파평윤씨	87.12.29	
	문 화 재 자 료 202호	달전제사	1동	연일읍 달전리 425	여강이씨	87.12.29	

구 분	지정별	문 화 재 명	수 량	소재지	관리자	지정 일자	비 고
문 화 재 자 료	문화재자료 205호	기천고택	2동	기계면 현내리 235	김영정	88. 9.23	
	문화재자료 206호	이원돌가옥	2동	기계면 오덕리 291	이원돌	88. 9.23	
	문화재자료 224호	장기 척화비	1기	장기면 읍내리 107	포항시	90. 8. 7	
	문화재자료 231호	보경사 대웅전	1동	송라면 중산리 622	보경사	75.12.30	
	문화재자료 250호	제남헌	1동	홍해읍 성내리 39-8	포항시	91. 9.6	
	문화재자료 267호	분옥정	1동	기계면 봉계리 736	경주김씨	92.11.26	
	문화재자료 327호	장기향교	6동	장기면 읍내리 202	장기향교	97. 9.29	
	문화재자료 328호	청 하 향 교	5동	청하면 덕성리 190	청하향교	97. 9.29	
	문화재자료 356호	하학제	3동	연일읍 달전리 177	경주 손 씨	99. 3.11	
	문화재자료 368호	포항수원김씨 남계공파문중 종적		해도동 77-14	포항수원 김씨	99.12.31	
	문화재자료 369호	칠인정	1동	홍해읍 초곡리 825	인동 장 씨	99.12.31	
	문화재자료 406호	월동재	506 m ²	대송면 장동리 212	수원김씨 남계공파	01. 8.20	
	문 화 재 자 료 479호	보경사 서운암 부도군		송라면 중산리 622	보경사		
	문화재 자료	우각리 여주이 씨 고택		신광면 우각리 529	여주이씨		지 정 예 고

(자료: 포항시 문화공보관광과, 2005)

다음은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고 장래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어야 할 포항 지역 내 산재해 있는 비지정 문화재 현황이다.

선사시대로부터 유구히 내려오는 귀중한 향토 문화유산으로서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지방 향토문화를 대변하고 향토애를 결집시키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서 체계적인 보존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현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각종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이 것들로서 세월이 흘러 먼 훗날 이들 또한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임을 볼 때, 이들 비지정 문화재들 또한 멀지 않은 시간에 문화재로 지정되고 적극적인 보존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런 문화재 보존에 대한 시간적 흐름에서 볼 때 현재 비지정문화재로 관리되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지정문화재에 버금가는 관리대책이 요구된다.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히 보존되고 있는 만큼, 지정문화재 정도는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멀지 않은 장래에는 지정 관리되어야 할 문화재들이 지정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방치되고 소멸되며 파괴되고 있다.

< 표8 > 포항시관내 비지정 문화재 현황

종류별	산성 읍성 목장성	역	고인돌	봉수대	비각	서원	고택	성곽	제실	건조물	정자	고분군	석물	기타
개소수	17	16	15	12	25	10	12	2	5	2	2	1	8	10

(자료: 포항시 문화공보과 2005)

다음은 향교 및 서원 그리고 관아건물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케 함으로써 체험을 통한 문화재 참 의미를 새기고 예 조상들의 슬기와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자료로 활용키로 한다.

< 표9 > 포항시 관내 향교현황

명 칭	소 재 지	창건 연대	입향 문중	건립	향제일	비 고
홍해향교	북구 홍해읍 옥성리	태조7년 (1398)	55	중건립	2월 上丁日	현 위치
청하향교	북구 청하면 덕성리	태조7년 (1398)	34	소건립	8월 上丁日	하방리→금정리→현 위치
장기향교	남구 장기면 읍내리	태종5년 (1405)	55	소건립	8월 上丁日	명장리→마현제당→현 위치
연일향교	남구 효자동	태조7년 (1398년)추정	88	소건립	8월 上丁日	장흥→성우리→현 위 치

(자료: 포항시 문화공보관광과, 2005)

< 표10 > 포항시 관내 서원현황

명칭	소재지	건립년도	건립취지	관리단체.문중
광남서원	구룡포읍 성동리 317	1791(정조15년)	문종의 고명을 받들어서 단종을 보좌하다가 1453년 계유정란때 김종서와 함께 수양대군에게 살해된 황보인과 두 아들을 제향하기 위해 건립	영천황보씨문중
현곡서원	구룡포읍 병포리	1980	순흥안씨 문중에서 선조를 제향	순흥안씨문중
오천서원	오천읍 원리 590	1588(선조21년)	정습명, 정몽주, 정충도, 정철을 향사하는 곳	영일정씨문중
중양서원	동해면 중산리 180-2	1794	조선 세조 조에 등과하여 문종과 단종을 섬긴 이조판사 남을을 주향	달성서씨문중
수성서원	동해면 공단3리	1955	조선시대 포천현감 김달한이 임란전 당파사움이 심할 때 피신 와서 그의 부친을 제사하기 위해 건립	경주김씨 문중
삼명서원	장기면 마현리 58	1854 (철종 5년)	조선 명종8년(1553)에 태어난 약우 이눌을 향사하는 곳	영천이씨문중
덕림서원	장기면 임중리 285	1740 (영조16년)	고려 충선왕때 5도 안찰사를 지낸 제헌 오방우를 향사	해주오씨문중
서산서원	장기면 서산리	1907	고려때 예조판사를 지낸 수은 김충한을 배향한 서원	경주김씨문중
학삼서원	장기면 학곡리	1907 (순종1년)	조선 선조25년 임진왜란 때 많은 공을 세운 죽계 김대임을 추모하여 봉사	창녕이씨문중
봉덕서원	장기면 방산리		미상	밀양박씨문중
안산서원	장기면 방산리	1939	을사사화때 간신을 물리치다가 장기로 귀향은 낙성 김숙과 김한창을 배향	경주김씨문중
금산서원	장기면 금곡리	1897	염오공 허진수를 제향하는 곳	김해허씨문중
임암서원	죽장면 입암리 176	1969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시헌 장현광을 주향하고 동헌 권극립을 배향	안동권씨문중.

(자료: 포항시 문화공보관광과, 2005)

< 표11 > 포항시 관내 관아건물

명칭	소재지	창건연대	비 고
제남현	북구 흥해읍 성내리 (영일민속박물관)	현종1년 (1835)	흥해군 관아 동헌이며, 1924년 흥해읍사무소로 이건, 1976년 구기(舊基)로 옮겨왔음. 현재 영일민속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근민당	남구 장기면 읍내리	조선말기	장기현 관아 객사, 현, 장기면사무소 별관으로 사용

(자료: 포항시 문화공보관광과, 2005)

마지막으로 최근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현장에 대한 현황을 보면, 포항지역에는 많은 매장문화재가 있었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지역에서 지표조사나 발굴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많은 매장문화재들이 훼손되거나 도굴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 후 1980년대에 들어와서 문화재 관련법이 정비되면서 각종 건설 공사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및 지표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포항지역이 한국 고대사에서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 이후 포항지역에서 실시된 매장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 현황을 다음과 같다.

< 표12 > 포항지역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현황

구 분	실시 연도	실시기관	보고서 발행	비 고
영일 지석묘 발굴	1964	국립박물관	1966	
동해문화권 지표조사 (기계, 흥해, 청하, 신평)	1985	경북대부속박물관	1985	
월성군, 영일군 지표조사	1985	국립경주박물관	1985	
냉수리 석실분 발굴	1990	국립경주박물관	1992	도지정 기념물 95호
장기읍성 지표조사	199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1	사적 제386호
영일 달전리 지석묘 발굴	1992	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박물관	1994	
남미질부성 지표조사	199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3	
흥해 옥성리고분 발굴조사(1차)	1994	국립경주박물관	1996	흥해읍사무소 부지
흥해 옥성리고분 발굴조사(2차)	1995	영남매장문화재 연구소	1997	
포항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오천,대송,흥해,대련)	1997	동대해문화연구소	1997	
환호동 지표조사	1997	영남매장문화재연구소	1997	해맞이공원 조성부지
흥해 성곡리 지표조사	1998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998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부지
기계 학야리 지표조사	1998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998	
흥해 초곡리 지표조사	1998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1998	신동아 아파트 건설부지
일월지 조사	2000	안동대박물관	2001	
포항 테크노파크 조성부지 발굴	2000	경주대학교 박물관	2003	포항 테크노파크 조성부지
포항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 발굴조사	2000	영남매장문화재연구소	2002	농수산물 도매시장부지

(자료: 포항시 문화공보관광과, 2005)

이상에서 포항시 문화재 기본현황을 조사해 보았다. 물론 타 지역에 비하

여 문화재가 많다거나 역사도시라고 주장하는 바는 아니나, 적지 않은 이들 문화유산들이 시민들에게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으며 하찮은 옛것으로 치유되는 실정이다.

다음은 이들 문화유적 속에서 보존을 전제로 하면서 시민들의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문화자원들을 시민 휴식 공간 및 관광자원 그리고 박물관 전시 대상 유물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 보았다.

2. 역사문화공간 조성으로 시민휴식공간 활용가능 문화자원 현황

—문화재 지정 또는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어 지역개발의 장애로 등장한 문화자원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어 지역개발에 장애물로 대두된 문화유적을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 역사문화공간으로 시민들에게 환경 친화적인 문화유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이러한 문화재 현황들을 분석해 봄으로서 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병행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되는 만큼 이들 문화재 가지고 있는 문화재적 가치와 시민생활 공간으로서의 이용가치를 상세히 짚어 가기로 한다.

1) 홍해 남미질부성

신라는 5-6세기에 이르러 왜구의 출몰과 고구려의 남진 등 동해안 방어를 위해 신라의 변방에 성을 쌓아 외침에 방비를 하는 국방강화책을 썼다. 남미질부성이 위치하고 있는 홍해읍지역은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고 해(海)로를 통해 신라의 세력권이었던 강릉, 삼척 등 동해안 방면을 연결시켜 주던 전초기지였으며, 영일만을 침입해 오던 왜를 방어하던 군사적 요충지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지증왕(504년) 9월에 미질성과 함께 12성을 쌓았는데 그중 하나가 현재 포항시 홍해읍 남성리 지산마을에 남아 있는 남미

질부성²³⁾ 이다. 망창산선이라고도 부르는 남미질부성은 흥해읍 남쪽 평지위에 돌출된 천연적인 구릉지를 이용하여 성벽을 축조하였는데, 서쪽과 동쪽이 높고 가운데가 낮으므로 남쪽과 북쪽에서 보면 마치 말안장 모양의 굴곡을 이루고 있다. ²⁴⁾ 성벽은 흙을 이겨서 쌓은 토성이며, 성 둘레가 약 2킬로미터나 되는 대형 급성곽이다. 1994년 4월 16일에 경상북도 기념물 제96호에 지정되었으며, 성안에는 남성리의 못산 마을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못산 마을의 서편 구릉지에는 성주의 무덤으로 전하는 고분이 7-9기 정도 남아있는 실정이다. 또 기록에는 1개의 못과 3개의 우물이 있어서 성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용하였다고 하는데, 현재는 1개의 못과 1개의 우물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 성곽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유사 4권, 신라본기 4, 지증왕 5년조에 나타나는데, 여기에 의하면 9월에 사람들을 모아 파리성, 미질성, 진덕성 등 12성을 쌓았다고 하였다. 여기에서의 “미질성”이 이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때에 성곽축조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성곽의 명칭이 “미질부성”으로 불렸고 축성연대도 서기 504년에 되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은 성곽을 연구하는 학자나 고대사 연구하는 학자에게는 더 할 수 없는 중요한 유적이라 생각된다.

1993년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지표조사에서 남미질부성에 대한 역사 기록을 입증해 주는 토기편 및 기와편 등의 다수의 유물과 유구를 발견했으며, 특히 이 성의 남편(南便)과 서북부 일부구간을 제외한 전 지역에는 성벽 및 성벽과 관련된 중요시설물인 환도상(還道狀)의 평탄지(平坦地)가 이어지고 있어 신라 토성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23) 경상북도 기념물 제96호, 1994.4.16 지정,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101외 53필지

24) 포항시, 포항시사, 고대국가시대, 2003, 53페이지

또한, 이 성곽은 흥해지역 뿐만 아니라 포항지역에 남아 있는 성곽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된 성곽에 해당되며 늦어도 고려시대까지는 흥해지역을 다스렸던 행정의 중심지였다.²⁵⁾

이러한 귀중한 역사문화자원이 문화재에 대한 뒤 늦은 사회적 인식으로 방치되고 훼손되어 아쉬운 감도 없지 않다. 포항시의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성의 서북쪽 256m되는 거리는 도시개발에 의한 도로개설과 택지조성으로 성벽이 사라졌으며, 성내의 중앙부도 많은 부분이 본래의 지형을 깎아버린 상태로서 성의 완전한 모습은 볼 수 없게 되었다. ²⁶⁾

전체성의 1,832m 정도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확인이 가능한 성벽은 1,576m로서 성내 및 성 주위의 현상변경 등의 진행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 성은 고 신라시대에 축성된 것이며, 일부는 훼손되었다고는 하나 전체성의 윤곽은 짐작할 수 있어, 경주를 중심으로 포항을 포함한 동북방지역의 다수의 성이 훼손되고, 흔적 일부만 남아 있는데 비하여 비교적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²⁷⁾

그리고 이성은 성의 북편과 동편에서 보이는 환도평탄지는 산 능선을 <ㄴ>자형으로 삭토(削土)하여 계단상으로 성벽을 축성하였음을 보여주는 희귀한 점에서 삼국시대의 토성 축조술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도시개발에 의한 훼손된 256m의 성벽과 성내 생활공간에 의한 형상변경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많은 부분이 변형되고 파괴되고 있으며 도2) 미질부성 보존계획도. 남미질부성이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환경을 보면 흥해읍과 포항시를 가로질러 형성되어 있는바 흥해읍의 도시팽창에 따른 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흥해읍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시가 확대 팽창되어 포항시와 합병 성장할

25) 포항시, 포항시사, 고대국가시대, 2003, 54페이지.

26) 경주문화재 연구소, 남미질부성 지표조사보고서, 1993.

27) 경주문화재연구소, 남미질부성에 관한 지표조사보고서, 향후보존에 관한 제언, 1996, 136페이지

수 있는 중간선성에 자리하고 있는 점에서 이 성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문화재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3-1~7)남미질부성 현황 사진 및 훼손,

실례로 1998년 흥해읍 지역주민 1927여명이 남미질부성 문화재 해제 진정 민원이 청와대를 비롯한 각계 요로와 시민단체 등에 접수되어 경상북도문화재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성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형상변경 등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이 문화재에 대한 거부감과 더불어 또 다른 문화재 파괴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2) 오천읍 고현성

토성인 고현성은 남구 오천읍 원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인덕동이 접해있고 북동으로는 영일만이 내려다보이고, 동쪽으로는 냉천이 흘러가고 있으며 보다 먼 동쪽에는 일월지가 있다. 도4) 오천읍 고현성 위치도.

이 고현성이 있는 지역은 삼한사회의 진한 12국중 근기국의 치소로 추정되는 곳이다. 이 지역이 신라초기에 신라로 편입될 때 근오지현으로 개편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고현성이란 과거의 근기국과 근오지현의 치소였던 고현면의 고현리를 말한다. 28)

고현성은 신라 경덕왕 16년 근오지현이 의창군 소속의 임정현으로 개칭되면서 읍기를 장흥동으로 옮길때까지의 읍치소로서 토성으로 주위를 둘러싼 마을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고증자료로서는 신동국여지승람 23권 영일현 고적조에 고현성은 ‘현 동쪽 15리에 토성이 있고 둘레는 1천척이며, 지금은 폐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일월향지에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있는 신라

28) 동대해문화재연구소, 포항시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오천읍, 1996, 121페이지.

시대 토축성으로 신라 근오지현의 군기(軍基)였다고 전하며, 오천서원은 청림에서 고현리로 이전할 때 고현성지의 중앙에 건립하였다는 설도 있으며, 신라 경덕왕 정유(丁酉)에 임정현(臨汀縣)이라 개칭하여 고읍성(제철동)에 축조하고 현기를 이전할 때까지 현기(縣基)였으며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기록하였다. 29)

성의 동서 방향의 단면에서 보면 낮은 구릉이 성의 내부 가운데로 더욱 낮아지며, 성의 서벽 남쪽 끝 지점에서 북쪽 끝 지점까지의 성벽사이의 거리는 525미터이고 동쪽 성벽이 있었던 지점과 서쪽의 성벽 사이의 거리는 250미터이다. 도 5-1~9) 오천 고현성 현황사진.

이 성은 규칙적으로 축성된 것이 아닌 자연적인 산 능선을 따라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동쪽의 성벽이 모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남쪽 벽과 서쪽 벽은 온전히 남아있는 곳이 많으며 붉은 황토와 석회석이 풍부한 냉천의 동편 지질과 역시 석회석과 붉은 점토로 이루어진 서쪽의 지질은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이들은 향후 토성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30)

이 고현성 역시 신라의 5-6세기 국방강화책의 일환으로 축성되었는데, 신라의 중요 국경지역과 왜구의 출몰이 잦은 지역에 성을 쌓아 방비를 하였던 것이다. 흥해의 남미질부성과 오천읍 갈평리와 진전리에 연하고 장기면 경계에 있는 만리산성, 축성법으로 보아 신라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신광토성, 기계면 문성리의 성산성 등이 포항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성으로 꼽히고 있다.

고현성은 서편에는 대송면에서 각종 공단지대가 발달하여 고현성을 침범하거나 공장부지 확장을 위한 개발신청이 잇따르고 또한 공단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투기하는 쓰레기 하치장으로 훼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고, 동편에는 오천읍과 경계를 이루면서 오천읍의 도시세 확장에 따라 고현성으로 구획정리

29) 포항시, 포항시사, 고대사회, 2003, 56페이지

30) 동대해문화재연구소, 포항시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오천읍, 1996, 123페이지.

를 비롯한 주택, 공장 등이 들어서면서 고현성은 문화재로서 위협받고 있다.

최근 고현성 서쪽편에 자리하고 있는 포항시 호동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포항시에서는 고현성 일부에 대한 쓰레기 매립장 확장계획을 추진하게 되면서 더욱 문화유적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문화재를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애물단지로 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대 신라의 근기국의 치소로서 선사시대부터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의 충신인 포은 정몽주의 유허비가 있는 충절의 고장으로서 도시발전 저해물에서 시민들에게 보호되고 아끼는 마음이 들게 하는 문화재 보존 정책이 필요하다.

3) 연일읍 영일읍성현황

고려시대에 이르러 거란, 여진 몽고, 왜 등 외적의 침입이 잦았던 관계로 어느 시대보다 성을 많이 쌓았다. 포항지역에 축성된 청하, 흥해, 영일, 울주, 장기 등이 성이 이 시기에 해당된다.

영일읍성은 남성(南城) 도6) 대송 영일읍성 위치도. 이라고 불려오고 있는데, 행정구역상 남구 대송면 남성리에 자리하고 있으나 연일읍과 접하고 있어 동일 생활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도7-1~4)영일읍성 보존현황

자연적인 지형은 남쪽으로는 우북동 계곡에서 발원하는 시내가 흘러 동쪽으로 지나가고, 북쪽으로 적기뫼가 있으며, 동쪽에는 트인 들판과 대각리에서 발원하는 남천이 흘러간다. 영일만으로 흘러드는 형산강이 하구지점에서 남천과 만난다. 이러한 지형은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진 곳이며, 신라시대부터 시작되는 왜구의 침입을 막기에 천혜의 조건을 갖춘 장소였다. 31)

해발 80m 남짓한 구릉지에서 평지로 찾아드는 지형을 이용하여 축조된 이

31)동대해문화재연구소, 포항시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오천읍, 1996, 121페이지...

읍성은 고려 현종 2년에 흙으로 쌓았다가, 공양왕 2년에 돌로 고쳐쌓고, 감무 겸 만호를 두었으며, 세종 12년 축성을 보게 되었으나 세종 16년까지 5년이 지나도록 완성하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세종 26년 7월에 가서야 완성을 보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영일읍성은 고려 현종 2년을 시작으로 세종 조에 꾸준히 축성되므로 위에 열거한 시대적 배경과 관련 깊고 외적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국방상 요충지였다고 할 것이다. 특히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고 방지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시말 하여 고려 현종 때부터 조선 영조 때까지 약 740년 동안 해안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성이었던 것이다.
32)

구 연일읍지에 기록에 의하면 읍성의 규모는 주위는 2,940척이고 높이가 12척이고 성안에는 우물이 3개나 있었다고 한다. 이후 많은 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러서는 총연장 1,193미터나 되며 여러 차례 축성을 거쳐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성도 다른 성과 마찬가지로 웅성, 수구, 장대, 망루, 여장, 해자 등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며, 현청과 창고, 연무장, 숙소 등으로 추정할 수 있는 주춧돌들이 발견되고 있다. 33)

현재 성곽 내에 100여호의 민가가 들어서 있으며 일부는 경작지로 개간됨으로 해서 많이 훼손되었으며, 최근 경주와 포항 간 산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도시개발을 저해하는 걸림돌로서 문화재를 대하는 시민들의 나쁜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

4) 구룡포 장기목장

32) 포항시, 포항시사, 고려시대, 2003, 115페이지.

33) 포항시, 포항시사, 고대국가시대, 2003, 116페이지.

영일만 지역에서 유일한 공목장인 장기목장은 울산목장에 소속되었으며, 관찰사 밑의 감목관이란 실무담당자의 관할 하에서 목자군 244명이 주위 120리에 1,008필의 말을 길렀다고 한다.

장기목장이 언제 설치되었는지 자료의 영성으로 정확히 밝힐 수는 없으나 신라시대에 목장이 174개소나 있었고, 또 조선시대에도 폐목장까지 합쳐 약 160개소의 목장이 있었음을 토대로 고려시대에도 그만한 수의 목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보면 일찍부터 목장이 설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4)

석병성이라고도 불리는 장기목장성은 주위 25리에 높이 10척의 거대한 목장성으로서 구룡포읍 창주리 석문동에서 시축을 시작하여 늪태리 계곡을 거쳐 응암산을 서쪽으로 돌아 공개산 서북편 산정을 지나 동해면 흥환동 배일리에 이르는 지대에 축성하였다.

당시 울산과 장기목장에서 말 2필씩을 골라 진상하도록 하였으며, 마단을 설치하여 3월과 10월에 제향과 기도를 매년 거행하였다. 또한 장기목장내에는 말 물 먹이는 못을 50여 군데 설치하였으며, 목장내 백성들이 매년 2월에 보수하였다. 장기목장은 갑오경장 후 일시 폐해졌다가 부활하더니 결국 을사조약 후 일제의 압력으로 폐지되고 말았으며, 폐목당시 마필 300여 마리는 일제 징용 당하였다고 한다.

장기목장성에 대한 기록들을 뒷받침 해주는 유적으로서 현재 구룡포와 동해면 흥환리 진골사이에 남아있는 목장성터가 있다. 35) 문제는 최근의 주5일제 근무 및 여가시간 증가로 인하여 각종 레저시설들이 설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 지역에 골프장 개장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보 해맞이 관광단지와 연계하여 동해안 절경인 해안도로로 이어지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하여 이지역이 골프장으로 허가 되게 되면 장기목장성에 대한 유적지가 파괴되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34) 포항시, 포항시사, 조선후기시대, 2003, 226페이지.

35) 포항시, 포항시사, 조선후기시대, 2003, 227페이지

그리고 장기목장성과 관련된 또 다른 유적으로 ‘감목관민공치역영세불망비’와 ‘일제조흥인군이영상국공최응영세불망비’도8) 민치역, 이최응 영세불망비가 동해면 흥환리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 바, 이 또한 세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훼손되고 멸실될 위기에 놓여있다.

5) 홍해 제남현

고려말 충정왕 2년(1350년) 왜구의 본격적인 침입이 시작된 후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축성한 홍해읍성은 현재의 홍해읍 성내리 자리에 토성으로 축성되었다. 홍해읍성은 일제 강점기에 모두 헐리고, 성에서 나온 돌은 포항축항공사에 사용되었으며 관아건물도 이때 모두 헐렸으나, 제남현 36)만은 남았다.

이 홍해읍성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제남현은 홍해군의 동헌 건물이었다. 제남현은 1925년 원래의 자리에서 동남쪽 70m 떨어진 구 홍해읍사무소로 이건하여 홍해읍 회의실로 사용하다가 1976년에 다시 원래의 자리인 현 위치도 9) 제남현 건물 전경에 이건하여 현재는 「영일민속박물관」 전시실로 사용하고 있다.

당시 홍해군의 동헌건물을 홍사무소 회의실로 또는 박물관도 10-1~2) 홍해 민속박물관으로 활용하면서 문화재 본래의 의미를 상실케 하는 동시에 많은 관람객들로 인한 지정문화재가 훼손,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은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어 보존하고 있는 유적으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인식되어 방치되고 훼손되고 있는 자원들이다.

36)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50호 포항시 북구 홍해읍 성내리 39-8 1991.9.6일 지정.

3. 관광자원 활용가능 문화자원

지역 문화행사들은 문화재와 관련된 행사들을 추진하면서 향토문화재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행사가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어 지역적 특성을 살린 향토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며, 지역문화행사가 주관기관들이 지나치게 영리에만 관심을 쏟아 상업성 행사의 이미지가 지배적이고 지역문화재를 활용하고자 해도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이다. 37)

이런 현실에서 일회성 문화행사를 지양하고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하는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재 자원을 발굴하고 시민들에게 보급, 관리하고 향후 도시발전을 위한 개발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 문화재와 관련된 장기적인 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절에서는 문화유적으로서 보존과 병행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원들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 장기읍성

장기읍성은 고려 현종2년에 장기에 토성을 쌓았다는 「고려사절요」의 기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읍지」 등의 기록으로 보아 조선초기에는 석성으로 개축되어 동해안을 방위하는 군사요충지로서 읍성이면서도 산성의 역할을 겸 하였던 중요한 문화유적지이다. 38)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에 자리한 장기읍성도(11-1~4) 장기읍성 전경은 이 고장 진산(鎭山)인 동악산에서 동쪽으로 뻗은 등성이에 있으며, 그 구

37) 서정인 향토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재 활용방안. 공주대. 예산 2000)

38) 경주문화재연구소, 장기읍성지표조사보고서, 서언, 1991, 29페이지.

릉 아래쪽으로는 장기천이 동해로 흘러 현내 들판을 형성하고 있다. 일제 잔혹함이 이 읍성에도 밀려 들어와서 성 안의 모든 관아 등 시설이 파괴되고 단지 향교만이 이 고장 주민들에 의해 보존되어 오다가 최근 행정관청에서 단장하였다.

이 읍성은 일찍부터 동해안을 지키는 다른 읍성들과 같이 중요한 군사기거였음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이성은 삼국시대에는 서라벌을 침공하는 왜구를 방어한 군사기거였고, 고려, 조선시대에도 같은 역할을 다 하였다.³⁹⁾

조선평화 15년에 장기읍성의 지리적 중요성에 따라 수령의 위계를 4품 이상으로 높여 무신으로 고관을 임명하여 지현사라 하였다가 세조5년에는 독진으로 되었다가, 뒤에 현감으로 고치고 그 밑에 훈도를 두었다.

한편 이곳은 벽지로 인정되어 귀양지로서도 되었으니 유교의 대가인 우암 송시열⁴⁰⁾과 실학파의 태두인 다산 정약용⁴¹⁾이 귀양살이 한 곳이기도 하다. 특히, 송시열을 기리는 죽림서원이 세워져 이 고장은 글을 읽는 마을이 되었으며, 이 고장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특성이 있는 곳이 아니고 오로지 국방의 일익을 담당한 군사기거로 그 역할을 다 하였던 고장이라 할 수 있다. ⁴²⁾

성의 둘레는 1.3킬로미터이고 성내 면적은 약 81,738평방미터, 12개의 치를 설치했다. 기록에는 읍성주위가 2,980척이나 되고 성고가 10역이 되며, 성내에는 4井 2池가 있었던 장기읍성은 지리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조선시대 전시기를 통하여 독특한 읍성 즉 산성적 읍성을 축조하여 유사시 성을 보

39) 경주문화재연구소, 장기읍성지표조사보고서, 서언, 1991, 31페이지

40) 조선후기 대학자이며 노론의 영수인 우암 송시열이 1674년 현종의 사후 효종의 모후 조대비 복상문제로 덕원에 유배되었다가 1675년(숙종 원년) 장기현으로 옮겨졌다. 송시열은 유배기간에 이고장의 관리과 백성을 상대로 유풍을 드리운 것으로 전해진다.

41) 조선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이 장기에 유배를 왔다. 3월 11일 장기에 도착한 다산은 10월 20일 황사영 백서 사건으로 다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될 때까지 220일 동안 머무르면서 기성잡시 27수 등 130여 편의 시를 남겼으며 의서를 저술하여 백성들의 질병치료에도 도움을 주었다.

42) 경주문화재연구소, 장기읍성지표조사보고서, 서언, 1991, 35페이지

호할 수 있는 대비가 가능한 상태에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하였던 곳이라고 할 수 있다. 43)

우리는 여기서 장기읍성이 다른 많은 읍성들과 차별성 갖는 중요한 보존가치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읍성의 유형을 보면 경주읍성이나 언양읍성, 남원읍성, 감포읍성처럼 중국에서 발달된 평지방형의 읍성이 있고, 다음 산이나 소구상(小丘上)을 이용하여 평지, 혹은 평지에 가까운 곳까지 에워싸서 읍성을 삼은 것들로서 산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에서 전통적으로 발달되어온 형식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읍성에서 특별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읍성의 형식으로 산성적 위치에 쌓은 읍성으로서 위치는 산상(山上)인데 기능은 읍성이었던 예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형식의 읍성이면서 완료된 가장 전형적인 존재의 장기읍성은 산성적 위치에 축조된 때문에 지금까지 훼손이 비교적 적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산상에 있으면서 치소를 가진 장기읍성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즉, 동쪽에서 바다를 통하여 침입하는 외적을 맞이하여 인근의 병력을 동원하여 이곳의 지원을 받을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였기에 자구책의 일환으로 유사시 입보용성(미리 험난하고 막힌 산성에 들어가 적과 대치할 수 있도록 한 성)이 가능한 산상에 치소를 두고 생업에 종사하였던 것이다.

바다로 들어오는 왜적을 맞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기읍성의 지리적인 요인은 서쪽으로는 산령이 가로막히고 남북으로는 인근 고을이 너무나 멀리 있어 갑작스런 왜적 침입 시는 산성에 입보 해야만 하는 입지조건이었던 것이다.

고려 말에 구 장기읍성이 축성되었으나 앞에서 언급한 입보용성으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였기에 현재의 장기읍성을 축조하였던 것을 추정된다.

43) 포항시, 포항시사, 현대사회문화, 2003, 346페이지.

적 침입시 지원군이 도착 할 때까지 오랜 시간을 생활해야 하는데 구 읍성으로서는 불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수도 부족한 등의 이유 때문에 서방에의 전망이 좋은 산상평지이고 중앙이 오목한 읍성위치의 산상을 택정(擇定)하여 정천(井泉)시설을 만들어 풍부한 민거(民居)를 형성하게 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지리적인 특수성이 읍성의 독특한 형식을 만들어 내게 했는데, 그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어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386호)로 관리되고 있다

또한 장기읍성은 그 잔존된 체성, 성문, 웅성, 치 등의 유구와 성내의 지, 정 등에 얼마간의 보수만 가하면 완전한 읍성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고, 더구나 현재 읍성 내에는 장기향교주⁴⁴⁾가 완재하여 있음에서 이곳 주민들의 문화의 뿌리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다. ⁴⁵⁾

현재 읍성 내에는 장기향교와 주민 16호가 살고 있으며,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주민으로 경제적인 수입이 많지 않은 편이다.

입보용 산성의 특수성에서 알 수 있듯이 읍성 내에서 모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읍성의 옛 모습을 복원하여 조상들의 슬기를 배우고 체험하는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31번 국도가 포항-구룡포-감포-울산으로 이어지고 이 국도에서 갈려져 장기읍성의 바로 앞을 지나는 906번 지방도로가 연결되어 있다. 해안선을 따라 오르내리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감포에서 포항으로 곧장 갈 경우 구룡포로 우회하는 국도대신 지방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⁴⁶⁾ 경주 신라문화 관광에 이어 조선시대 읍성의 새로운 축성 양식을 관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더없는 문화재 활용에 다가선다고 할 수 있겠다.

44)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27호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202, 1997. 9. 29 지정

45) 경주문화재연구소, 장기읍성지표조사보고서, 1991, 123페이지

46) 경주문화재연구소, 장기읍성지표조사보고서, 서언, 1991, 123페이지

2) 기계 문성리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계면 문성리는 1970년대 근면 자조 협동의 실천덕목을 행동의 지표로 삼고 ‘하면 된다’. ‘잘살아보자’고 하는 새마을 운동의 근본정신을 실천한 새마을 운동의 발원지이다.

새마을 운동은 1970년대 전국의 자연부락을 사업단위로 하여 마을내의 기초 환경 개선사업으로 지붕개량, 담장 바로잡기, 마을안길정비 등의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1972년대에는 주민지도자의 발굴과 훈련에 역점을 둔 정신계발사업과 생산 소득을 증대시키는 종합적인 운동으로 전개해 온 범 국민운동이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초기 부패 민주주의 정치에 의한 국민들의 생활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낙후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한 단계 근대화시킨 이 새마을운동이야말로 우리나라 역사상 높이 평가되어야 할 국민정신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 포항 기계면 문성리가 새마을 운동의 발원지로서 농촌 잘살기 운동이 실천된 것은 기계면을 중심으로 한 포항 내륙의 근면 정신과 포항인 특유의 개척정신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낸 결정품인 것이다.

이것은 미래를 지향하는 포항인의 개척정신이며, 포항이 세계 속의 철강도시로 성장하게 되는 지역민의 저력을 보여주는 자랑거리로서 그 정신과 함께 길이 보존되어야 할 문화유산인 것이다.

개인주의와 물질문명이 만연하고 인간의 도덕성 상실 등의 윤리의식이 사라져가며, 인간의 도구화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 물질사회에서 새마을 운동정신을 새로이 연구하고 다시 제2의 새마을 운동을 벌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야말로 매우 고무적인 일일 것이다.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새마을 운동을 실시하던 70년대 초에서 30여년이 지

난 지금에 와서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한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자는 국민적 여론은 우리민족의 역사상 그 유물들과 함께 기본정신은 영원히 계승되어야 한다고 보아진다.

현재 본지(本地)에는 새마을운동을 기념하는 기념비도12-1~2) 새마을운동 발상지 유물유적 전경(기계 문성리와 함께 안내판이 버려지다시피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고대사회를 비롯한 고려, 조선대에 걸친 우리의 문화유산에 많은 보존 노력을 기울려야 하겠지만,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한 발전을 가져온 민족정신을 담고 있는 기계면 문성리 새마을 운동 발원지 유적 등 근세 문화유적도 적절한 보존조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들도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중요 역사문화재가 될 수 있는데, 현재는 방치하고 세월이 지나 몇 배의 노력과 비용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자는 국민적 여론과 더불어 발상지인 현지에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기록물 등의 자료 등을 전시하고, 기념비 등과 함께 당시의 운동의 근본취지를 실감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국민 계몽 등의 교육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실질적인 보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3) 연일 달전리 주상절리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및 울릉도의 일부 해안에서만 절리 현상을 볼 수 있으며 내륙지방에서는 유일하게 포항 연일읍 달전리의 주상절리는 지질학상 중요한 자연사 자료로서 지난 2000년 5월에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이 주상절리는 신생대 제3기말에 분출한 현무암 지대의 용암 주상절리로 발달상태가 양호하고 지질시대 및 분포지역의 특성으로 보아 “특이한 구조나

형태로 되어 있는 지형, 지질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아 이를 보존하기로 하였다. 즉 다시 말하자면 포항의 주상절리는 그 형성시기가 신생대 제3기 즉 약 200만 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국내 다른 지역의 주상절리 형성시기가 신생대 제4기, 즉 약 30만 년 전으로서 그 발생시기가 매우 앞서는 것으로서 그 특이성이 있으며, 또한 약 20미터 수직방향으로 연장되는 돌기둥의 모습은 국내외 보기 드문 구조와 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절리란 지질학적 측면에서 보면 암석의 물리적 연속성을 끊는 단열 또는 분할선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암석이 금이 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절리는 지형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절리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표에 있는 암석에 절리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결과는 아주 심각해질 수 있다.

암석에 절리현상이 없으면 기계적인 풍화작용이 일어나기 힘들고 풍화작용의 진전이 없으면 토양생성이 어려워진다. 토양의 발달이 약하면 식물이 자랄 수 없고 식물이 자라지 못하면 동물의 존재 또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절리 현상의 발달과정과 형성요인, 종류 등을 통하여 풍화작용을 관찰하고 관심 있게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의 자료로서 내륙에서는 유일한 포항 달전리의 주상절리는 그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47)

주상절리는 용암이 냉각되는 도중 수축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제주도 기념물 제50호), 울릉도 등지에 일부 분포하고 있다.

포항 연일읍 달전리 주상절리는 연일읍 달전리 산19-3번지 일대에 4,740여 평의 면적에 5각형 내지 6각형의 감람석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돌기둥이 여러

47) 포항시, 달전리 주상절리 문화재지정 신청서, 1999.

개 이어져 높이 20미터, 폭 약 100미터 규모의 암벽을 이루어 마치 병풍을 펼쳐 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도13-1~2) 연일읍 달전리 주상절리 형성전경

하지만, 지난 2000년 5월에 천연기념물 제415호로 지정은 되었으나 채석으로 인한 주상절리의 외부 노출로 태풍 및 강한 폭우 등의 자연적인 훼손 여건으로 풍화작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직선 800미터 거리에서 펼쳐진 포항 우회도로의 대형차량 통행 등에 의한 인위적인 손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주상절리 관리 현실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훼손방지를 위한 절리의 보호책 설치 등의 적극적인 보존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지정은 되고 관리는 뒷전인 문화재 보존 현실이다.

4) 영일 일월지

포항이 속해있는 영일만 지역은 해를 맞이한다는 한자 풀이와 더불어 해와 달을 숭배하는 전설을 가진 곳이다. 즉 해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체의 탄생을 기원하고 달을 통하여 풍요를 비는 자연숭배신앙이 있는 연오랑 세오녀의 전설이 이곳 영일만 동해면 도구리 일대에서 발원되었다. 해와 달의 빛을 다시 찾은 연못인 일월지는 남구 오천읍 용덕리 60번지 일대에 자리하고 있으며 1997. 9. 29일 경상북도 기념물 제120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도13-1~

2) 일월지 전경 사진

일월지와 관련된 연오랑 세오녀의 설화를 간단히 소개하면

“신라 제8대 아달라왕 즉위 4년 정유에 동해가에 연오랑 세오녀라는 부부가 살았다. 하루는 연오랑이 바다로 가 해초를 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위 하가(고기 한 마리라고도 한다) 연오랑을 업고 일본으로 갔다. 일본사람들이 보고 이는 뛰어난 인물이라 하며, 곧 임금으로 삼았다(일본제기를 살펴보면 전후로 신라인이 임금이 된 사람은 없다. 아마 변방 시골의 작은 임금이지 진

짜 왕은 아닌 것이다) 세오녀는 지아비가 오지 않는 것이 이상해서 돌아와서
찾으니 지아비가 벗어놓은 신을 보고 바위위에 올라 그도 바위위에 오르니 바
위가 또 업고 갔다. 그 나라 사람들이 놀라서 왕에게 알리니 부부가 서로 만
나니 귀비가 되었다.

이때 신라에 일월의 빛이 없었다. 예언자가 아뢰기를 ‘해와 달의 정기가
우리나라에 와 있다가 지금 일본에 갔기 때문에 이러한 변괴가 있다’고 한
다. 왕이 두 사람을 구하고자 사신을 보내니 연오랑이 말하기를 ‘내가 이 나
라에 온 것은 하늘이 시킨 것이니 어떻게 돌아가겠니? 그러나 짐의 왕비가 짝
섬세한 비단이 있으니 이것으로 하늘에 제사지내면 될 것이다’ 하고 곧 그
비단을 주었다. 사신이 돌아와 그대로 하니 일월이 옛날처럼 되었다’ 그 비
단은 어고에 간직하고 국보로 삼았다. 그 창고를 귀비고 하늘에 제사 지낸 곳
영일현 또 도기야라 했다. 48)

이 연오랑 세오녀 설화는 고대의 한일 관계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면서
해와 달을 으뜸으로 하는 우주나 자연을 숭배하는 사상이 깃든 설화로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정신적 문화적 지표가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연오랑 세오녀의 전설은 유이민과 원주민의 싸움에서
원주민에게 패배하여 새로운 이상을 펼치기 위하여 일본에 건너갔으며 해와
달의 정기가 없어 졌다가 다시 빛을 뒤 찾은 것은 하늘의 뜻에 의한다는 천제
숭배사상과 원시도교사상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49)

포항시 남구 일월동과 동해면 도구리 일대는 연오랑과 세오녀 전설과 관련
이 깊은 곳으로서 일월지와 일월사당, 일월지 사적비 등이 있다.
먼저 일월지는 현재 3천여평의 면적에 해병 부대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과거
일월지 주변에는 구릉지가 많았으며, 아름드리 소나무들로 형성되어 있었으나,

48) 삼국유사 권 제1기이 제2(연오랑 세오녀)

49) 대구대학교박물관, 포항일월지 지표조사보고서, 포항, 1999 32페이지.

해방 후 미군부대가 들어와서 기지 확장공사를 시작하여 북쪽 구릉 1,000여 평이 매립 축소되어 형태마저 변형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음 일월 사당은 동해면사무소 뒤 구릉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 일월지 인근에다 일월신을 모신 사당으로 신라시대에는 왕실에서 그리고 고려 및 이조시대에는 영일현감이 친히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일월지 사적비는 일월지 앞쪽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데, 일제가 그들 왕족이 연오랑과 세오녀의 자손이라는 설화의 내용을 부정하기 위하여 비를 철거 하여 버린 것을 1992년에 영일문화원과 영일군이 해병부대의 지원을 받아 건립하였다.

그리고 포항시에서 격년제로 개최되는 영일만 축제 행사에서 해와 달 부부를 선발하여 일월지 물을 떠서 일월사당에 제를 모시는 행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과거 일월 문화재 및 국가지정 대보 해맞이 공원의 지정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일월지는 이지역의 오랜 농경문화와 깊이 관련이 있는 유적지라는 역사성과 연오랑 세오녀 설화가 담고 있는 설화 문학적 민족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이 지역민들과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민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사적 지역 문화적 문화유산인 일월지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과연 이 설화와 관련하여 지역민들의 관심과 보존에 대한 열의를 불러 올수 있는 시민의식이 이루어 져는가가 의심된다.

해병 부대 내에 있는 이 지역민의 긍지를 대변하는 상징인 일월지를 복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비하여 일반인들이 향시 관람이 가능토록 부대와 협의를 추진토록 하여 포항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동시에 해와 달의 고장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일월지의 관리를 맡고 있는 해병부대에서 수질 관리나 주변 조경을

매우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국군으로 지역민의 관심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4. 종합박물관 신축에 따른 전시자료

「한국인이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자랑거리는 구텐베르크보다 앞서 발명한 금속활자도 아니요, 이순신장군의 거북선도 아니고, 끊임없는 외국의 침략을 받아왔으면서도 5천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도 아직도 한국인으로 살아남아서 한국 고유의 언어, 풍습, 의복, 음식, 문화 등은 그대로 간직해 온 강인한 새 생명력과 저력이다」라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수 글렌 G. 페이지 박사의 3.1절 기념강연에서 지적하고 있다.

21세기 문화에 시대에 부응하여 향토 지역주민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지방문화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문화활동을 전개하는 단체와 조직들의 개방적 활동에서 일부 전문 지식가나 향토문화연구가에만 의존되어 향토문화자료의 조사연구, 발표 등 제한된 운용보다는 이 활동이 근본적으로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동질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향토문화자료의 전시, 홍보, 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전시실, 자료실, 박물관 등이 건립되어 효율적이고 활발한 운영이 되어 역사와 문화관을 바르게 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전시장, 자료실, 박물관 등은 단순한 선대들이 문화유산을 수집하고 보관되어 전시 활용되는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공개장소가 아니라, 정신적 휴식공간이고 문화적 모임인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볼거리, 쉴 거리 등을 갖춘 문화예술의 공간 중심체로 다양성을 지녀야 한다. 50)

그러나 포항시의 문화재 보존현실을 보면 각종 개발 사업에서 출토되는 매장문화재는 발굴기관이나 박물관 등에 흩어져 보관되고 있고, 지역문화를 대

50) 서정인 향토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재 활용방안. 공주대. 예산 2000)

변해 주는 민속자료 또한 과거 행정관청인 제남현 자리에 일부만 전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장고에서 방치되는 등의 현실이다.

이러한 포항지역의 문화재 보존관리 현실에서 이들 각종 문화유산들을 효과적으로 보존하는 동시에 교육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박물관의 건립이 시급하다. 이번 장에서는 종합박물관에 전시되어야 할 문화유산들을 열거하여 봄으로써 박물관 건립의 당위성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1) 영일민속박물관 소장자료 등 지역 민속자료

우리나라 고유문화가 이루어진 과정에 있어 그 기초적인 역할은 일상생활에 사용되었던 각종 민속생활용구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으나 급변하는 현재의 물질문명에 의거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조상들이 사용하여오던 토기, 생활용구류, 농어기구류, 관혼상례용구, 고서적류, 의관류 등이 흥해읍에 소재한 영일민속박물관에 일부만이 전시되어 보존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자료들은 수장고에서 보존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14) 영일민속박물관내 유물 보관현황, 또한 보존지식이 없는 개인이 이러한 귀중한 민속자료들을 소장하고 있으면서 문화재가 썩어가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이다. 문화재란 공유재산인 것을, 소유권만을 주장하는 개인으로 인하여 사라져가는 문화재 보존의 한 단면을 지켜만 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런 문화재 관리현실에서 영일민속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민속문화자료 4,700여점을 비롯하여 임곡 휴게소 등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민속문화자료, 그리고 각 지역에 산재된 각종 생활용구 및 건축자재, 농어류 기구 등을 수집하여 체계적인 전시를 할 필요가 있다.

2) 매장문화재 출토유물

최근 포항지역에서는 영일만 신항 개발을 비롯하여 공업단지 조성, 아파트

건립, 등의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구제발굴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포항지역에서 이루어진 사업으로 테크노파크 조성부지, 신동아 아파트 건립부지, 농수산 도매시장 조성부지, 흥해읍 신청사부지, 등 많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들 발굴현장은 천년고도 경주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신라를 비롯한 고려 조선에 이르는 다양한 매장문화재가 수없이 쏟아져 나왔다.

여기서 나온 귀중한 많은 매장문화재가 과연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가는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는 사람들이 자문하여 볼 일이다. 물론 출토된 매장문화재로서 국가귀속 수준의 문화재 가치가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보존법 제48조에 의거 국가에 귀속토록 되어 있으며 국가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 관리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 문화재 보존관리 시설의 한계에 따라 일부는 국공립대학 부속박물관에, 일부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지역박물관, 그리고 발굴기관에서 각각 소장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유실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각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소장 기관에서 체계적인 보존체계에 의하여 관리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쏟아지는 출토유물에 한정된 보관 처리기능은 이들 유물들을 수장고에 방치시키게 되고 방치된 유물들은 지상으로 나오는 순간 썩어가고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화재 보존관리 현실에서는 지역 내 학생들을 비롯하여 지역 문화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문화재를 관찰하고 교육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노력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포항지역 건설공사 현장에서 출토된 2천8백여 점의 매장문화재는 그 문화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것을 감안 할 때,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이어 학문적 연구에 이용되어야 함에도 전시, 보존처리 시스템이 미흡하여 타지 타 기관에서 관리됨으로 인하여 지역 유물에 대한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방치되고 손상

되는 우려가 있으며 전시 보관 기능에서 학습 및 조상의 예지를 본받는 적극적인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에서 출토되는 문화재는 지역 내에서 보존 기능을 갖추고 지역민에 의해서 관리됨으로 해서 지역민들이 지역에 대한 역사를 체험하고 지역에 역사성에 대하여 스스로 자긍심을 가짐으로서 향토애를 결집시킬 수 있는 보존관리체계가 요구된다 할 수 있다.

3) 포항시 주요 문화재

포항지방을 대표하는 주요문화재로서 종합박물관 건립시 전시 보존가능한 문화자원들을 인문적 자원과 자연사 자원으로 대별하여 조사해 보았다,

▶인문적 문화자원

①영일 냉수리 신라비

영일 냉수리 신라비는 국가에서 세운비로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고 왕명을 다룬 초기 율령체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현존 최고의 신라고비로서 지난 91년 3월 15일 국가지정 국보 제264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도15) 영일냉수리 신라비<신광면사무소 내>.

이 비에는 “신라의 실성왕과 내물왕 두 왕이 진이마촌의 절거리에게 재산 취득을 인정하는 교를 내렸는데 계미년 9월 25일에 지증왕 등 각부의 대표7명이 함께 논의하여 두 왕의 조치를 다시 한 번 별교를 통해 절거리가 죽은 후에 아우 아사노 또는 아우의 아들 사오에게 재산이 상속되고 미추, 사신지는 재물 분배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지 말 것이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중죄에 처할 것임을 결정하였고 이 명령은 중앙기관의 전사인 7명과 지방관서의 촌주 2명이 일을 마치고 이 사실을 기록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51)

51) 포항시, 우리고장문화재, 영일냉수리신라비, 2003, 7페이지.

이 비는 1989년 3월경 신광면 냉수리에 사는 이상운이 자신 소유의 밭에서 발견하여 당국에 신고함으로써 학술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 관리되면서 현재 신광면사무소에 보존 관리되고 있다. 전면에 12행 152자, 후면에 7행 59자, 상면에 5행 20자로 총 231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면 하면 너비 73미터, 좌변 높이 47미터, 우변 높이 66센티미터, 두께 30미터의 부정형 4각형이며 하단이 넓고 위로 올라가면서 너비가 축소된 비로소 눌지왕 27년 또는 지증왕 4년으로 추정되는 신라 고비이다.

신라와 근접하였다고는 하나 30여 킬로미터의 거리인 이 지방에서 당시의 재산 분쟁과 관련된 사건을 비에 기록한 비석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역사적 해결과제와 더불어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담고 있다. 왕이 직접 개인의 재산분쟁에 관여 했다는 것과 당시 왕의 위치와 왕을 둘러싼 고위관리들의 체제 및 지방관직 체제, 당시 사회, 경제 등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재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되새겨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향토애를 돈독할 수 있는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②오어사 동종 및 보경사 서운암 동종

오어사 동종은 오어지 상류 준설 공사중에 발견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범종으로 종의 표식에 주조내력이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화문과 비천상 등 제작기법이 뛰어나며 전체적으로 종의 균형미가 있고 보존상태도 아주 양호하며 외형이 완전하여 1998년 6월에 보물 1280호로 지정되었다. 도17-1~2) 오어사 동종 및 원효대사 삿갓 사진.

오어사 동종은 신라 동종의 주 양식을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성시기가 명확하게 고종 3년(정우 4년) 서기1216년에 주성되었다고 명문에 나와 있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종의 주성시기가 명확하게 표시된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리고 현재까지 출토된 고려시대 후기 범종 중에서 오어사 종보다 빠른 편년을 가진 것은 정풍2년 범종과 을사명 범종, 정축명 범종 등 4구인데 모두 오어사 종보다 어렵없이 작은 종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보존상태와 외형이 완전한 오어사 종은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종으로 평가 받고 있다. 52)

보경사 서운암 동종도18) 보경사 동종 사진은 높이 54.3센티미터 반지름 43.0센티미터이며, 지금까지 알려진 사인비구(思印比丘)가 주성한 종 가운데 조상연대가 가장 앞선 것으로 비록, 종의 규모는 작지만 사인비구(思印比丘)의 초기 종 연구에 사료적인 가치가 있어 지난 2000년 2월에 보물 제11-1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동근 고리 모양의 종뉴(鍾紐)를 갖추었으며 입석 상에 이어 마련된 상대를 비롯하여, 미모꼴 유곽과 하대가 잘 남아있다. 상대는 인화보상화문을 정교하게 동(銅)을 새김 하였으며, 하대는 다소 간략한 형태의 당초문을 장식하였다.

입상대는 모두 40개의 세운 연꽃잎모양으로 각 잎마다 인물상을 안치하였으며 유곽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9개의 유두대신 5개의 유두를 설치하였다. 유곽 사이의 각 여백도 보살상이나 위패모양이 아닌 ‘八字大明王眞言’을 배치함으로써 다른 종들과는 달리 ‘진언을 문양화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53) 보경사 서운암 동종은 비록 크기는 작지만 사인비구의 초기 제작기법을 볼 수 있으며, 조선시대의 종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지방에서 이만큼 귀중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진작 우리 시민들은 국보급의 소중한 문화유물의 존재 유무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감상하는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52) 동대해문화연구소, 동대해문화연구 제2집, 오어사 범종고, 1996, 39페이지.

53) 포항시, 우리고장의 문화재, 보경사 서운암 동종, 2004, 15페이지.

이제는 지역의 문화재는 지역에서 전시, 보존 관리될 때 진정 문화재에 대한 애착심과 향토애, 그리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보경사 서운암의 동종을 오어사 동종과 옆옆에 보존 관리함으로써 비교 분석도 가능할뿐더러, 보존비용 절감 및 교육적 활용 가치가 매우 크리라 생각된다.

③김정 교지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68호로 지정된 김정교지는 수원김씨 남계공파 문중의 소유로서 15세기 고문서로서의 역사적, 자료적 가치가 인정되어 지난 99년 12월 30일에 지정 관리되고 있다. 도19-1~3) 수원김씨 김정교지 사진.

이들 자료는 영일지역에 거주하는 수원김씨 일족들에 관련된 자료로서 전적은 김원룡(설명 1)의 임진왜란 참전시의 일기이며, 고문서는 김정. 주44) 세종원년 충청도 절도사인 김상여의 손자로 1456년(세종 2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1471년 인동현감, 1475년 사포서사포, 1478년 인동현감, 1494년 승문원 교리를 역임). 김팔암⁵⁴⁾ 그리고 김현룡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교지 및 첩지이다.

이들 수원김씨는 고려말 홍건적 침입시에 공을 세운 김한진(설명 2)의 후예이며, 김한진의 손자 예신(禮伸)이 영일지역으로 옮겨와 그의 후예들이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료 제작의 순서별로 해당 인물을 차례로 살펴보면, 김정(1426-1493)은 예신의 아들로 1456(세조 2) 무년문과에서 정료(丁科) 15인으로 급제하여 司圃, 인동현감, 교리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김팔암(1651-1729)은 1676년

54) 김정의 8세손으로 1676년에 무과 급제하여 훈련원 판관을 거쳐 첨정을 역임.

(숙종 2)에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판관을 역임한 후 검정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리고 김현룡(1550-1620)은 본관은 수원, 자는 덕보, 호는 월동, 수월제로서 남구 대송면 월동에서 태어났으며,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경주성이 함락되자 그의 동생 원룡, 종제인 字경, 자결, 자정 등과 함께 거병하여 안강전투에 참여한 이래 영천성, 경주성의 수복에 공을 세웠다고 한다. 이러한 군공으로 인해 절충장군 두무포만호에 임명되었으나 사임하고 은거하여 학문의 연구에 힘썼다고 한다. 그의 임진왜란 참전에 대한 간단한 일기가 남아 있으며 1828년(순조 28) 호조참의에 추증되었다. 55)

고문서의 종류는 김현룡의 임란참전일기 18매와 김정교의 교지 3점을 비롯하여 6점, 그리고 오구단자 10여점, 종문 2점, 소지 2점, 전령 1점, 통문 1점 등의 자료가 있다.

이들의 전적적 가치를 보면, 김정교의 교지 3점은 고문서가 많지 않은 현재의 형편에서 자료적인 가치가 매우 크다. 이에 비해 김현룡의 참전시의 일기는 당대에 만들어진 책자가 존재하지 않고 19세기에 정리된 것이어서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임진왜란시의 경상도 동부 지역의 전황을 기록한 것이어서 이 지역의 임란 지역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역사적 측면에서도 김정교의 교지 3점은 15세기 고문서가 남아 있지 않은 현재의 형편을 감안하면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자료적인 가치가 매우 크다. 김현룡의 임진왜란 참전시의 일기는 임진왜란시의 경상도 동부지역의 전황을 기록한 것이어서 이 지역의 지역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56)

조국의 위태함에 분연히 일어나 의병을 일으켜 싸운 공적과 충열의 열이 담긴, 특히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위해 충성을 열사들이 많지만 한집안

55) 포항시, 수원김씨 문중 전적 및 고문서 문화재 지정 조사서. 1999.

56) 포항시, 수원김씨 문중 전적 및 고문서 문화재 지정 조사서. 1999.

에서 오종손이 함께 의병을 일으킨 예는 고금을 통하여 찾기 힘든 일이며, 또한 고문서로서의 사료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이들 문화유산이 현재 개인의 소유로 되어있으며 개인이 관리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관람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자연사 자원

포항을 접하고 있는 해역은 영일만을 끼고 남북을 구분하고 있는데, 동해에는 Kuroshio의 지류인 Tsushima해류가 한반도의 동남부에서 대한해협을 거쳐 북쪽으로 흐르고 있어서 한반도의 해안선을 따라 두 해류가 만나고 있다. 57)

영일만은 중생대 말기에 생성된 조륙작용의 경상계 호수연변부에서 퇴적되면서 죽장, 기계, 신광, 청하가 부분적으로 중생대의 화산활동과 불국사통 화강암이 관입 내지 보경사 분암으로 인하여 생성된 지역이다. 그리고 신생대 3기의 전기 마이오세에 생성된 장기충군, 행정구역상으로는 장기, 구룡포, 동해, 대보, 일부의 오천이 여기에 속하고, 포항을 중심으로 해안에 접한곳은 행정구역상으로 오천의 일부분과 대송, 연일, 포항시가지, 흥해, 청하의 일부가 이때에 생성되었다. 58)

이렇듯 해안과 접하고 있는 지질변화와 내륙적 성향의 지각변동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으면서 만으로 형성되어 있는 포항의 특수한 지역적 특성으로 최근 포항지역에 자연사 관련 자료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①달전리 주상절리 돌기둥

흥해읍 대련IC에서 위덕대 방향의 산 절개지에서 최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주상절리’는 신생대 3기말에 형성된, 5각형에서 6각형

57) 포항시, 포항시사, 제6편 자연환경과 인물, 2003, 523페이지.

58) 포항시, 포항시사, 제6편 자연환경과 인물, 2003, 466페이지.

의 감람석 현무암으로, 제주도 및 전라도 등 해안지방에서 일부 발견되어 국가에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과 달리 내륙에서는 유일하게 나타나는 주상절리 현상으로 그 학문적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도) 달전리 주상절리. 사진: 앞의 사진 참조

내륙에서는 유일하게 2백만 내지 3백만년전 신생대때 암석이 지각변동의 압력에 의해 높이 20 내지 40미터로 형성된 주상절리 돌기둥을 전시함으로서 지질학계 및 학생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②고래화석

포항중심 북동쪽의 장성구획정리지구에서 신생대에 해당하는 3미터이상 크기의 고래화석 및 각종 금빛 화석이 발견되어 전국의 지질학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었다.

고래화석은 발견이후 1년이 지난 이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국가에 귀속조치는 되었으나 포항지역에서 보관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장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현재 전라도 광주의 한 개인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동해안 하천변의 다른 지역에서 보기 드문 지질화석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 지역 지리학 연구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 이들 자연사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전시함으로써 학습용 또는 지역을 연구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③홍해 학천 인터체인지 마이오세 연체동물 화석

지난 2000년 경주 강동에서 포항 홍해간 도로 4차선 확장 공사중 홍해읍 대련 인터체인지 공사구간 내에서 발견된 신생대 중기 마이오세 연체동물화석이 발견되어 한반도 지질조사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 지질시대의 고환경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고생물학적 접근은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행하여지고 있는데 최근 고생물을 통해 과거 지질시대의 고환경을 복원, 파악하는데 화석생성론 개념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59)

한반도에서 연체동물을 통한 고환경 및 지질역사에 관한 연구는 주로 중생대 경상계 지층과 울산, 포항, 영해, 제주도 서귀포시 등지에 분포하는 제3기 지층을 대상으로 행하여졌다.

이번 포항분지에서 새로이 발견된 본 화석단지는 포항분지에서는 드물게 외래 서식 종으로 구성된 패류화석이 대량 산출되며 산출형태 또한 특징적인 것으로 포항분지의 고 환경 및 변천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발견된 화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표13 > 중기마이오세 연체동물화석 조성표

지질시대	층명	암상	종 류		개 체 수	비 고
중기 마이오세	학전층	사질박층 함유니암	연체동물	Acharax tokunagai	165	
				Lucinoma acutilineata	142	
				Fissidentalium sp.	2	
			성 게류		3	
			바다가제류		1	
			어류		2	

자료: 경북대, 흥해대련IC 연체동물화석 발굴조사보고서, 2000. P3

이러한 중기 마이오세화석들은 지금부터 약1,600만 년 전 포항지역에 서식했던 해서생물로서 연구자를 위한 학문적 가치는 물론 초, 중, 고등학생들의

59) 경북대, 흥해 대련IC 연체동물화석 발굴조사 보고서, 2000.

학문적 호기심 및 자연과학에 대한 탐구용구,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 있어서 지역의 자연문화유산에 대한 경이심을 고취시켜 지역 자연문화유산의 보존 계승할 수 있는 홍보 자료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자연사 자료들은 다른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포항만의 자산이다. 포항의 정체성을 살리고 지역의 애향심 고취와 자긍심을 살려가는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이제는 생활 속의 문화유산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보존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을 통한 보존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V. 포항시 주요문화재 활용을 통한 보존정책 제시

문화재는 한 민족 집단이 생활을 영위하면서 만들어 낸 모든 것 가운데서 문화적으로 인류 보편적인 동시에 민족특수적인 성격을 띤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즉, 문화재는 역사적으로 한 민족 집단의 생활체험의 표현이며 그 표현물 가운데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산들이라고 할 수 있다. 60)

최근 외래문화가 물밀 듯 들어오는 가운데 우리는 거의 무비판적으로 외래 문화를 수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민족의 전통문화가 남겨준 유산이 크게 외면당하고 있는 형편이며, 자칫하면 우리민족의 고유성이 상실되어 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의 역사적 전통문화의 특성을 알고 지방화시대의 지역발전과 문화 창달의 안목을 가져야 한다. 61)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미래의 이상을 제시하는 지혜의 집약으로서 우리 지역에 문화재를 우리 지역민들이 향유함으로서 지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지역 문화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보존 계승하는 발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문화재 관리정책에서 문화재 보존과 활용 정책은 상반된 개념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활용은 바로 문화재 훼손으로 연결된다고 보아왔다. 물론 원형 그대로의 보존, 최소한의 손질 등 환경 그 자체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앞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시권확장 등과 같은 문화재 파괴 등의 우려를 좌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경제가 우선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 보존 자체를 위한 예산 지원만을 고집 할 수는 없다. 문화재도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이중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원을 찾아내어 여러 가지 검증을

60) 남궁승태, 문화재보호와 환경권,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6.

61) 서정인, 향토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재 활용방안, 공주대, 2000 1페이지

통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술한 포항지역의 많은 문화유물유적들을 보존을 전제로 한 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3개 산성의 역사문화공간 활용화 방안

-문화재 친화적인 시민 휴식 공간 (1도심 4부도심) 조성

포항지역은 철강도시로서 문화공간이 부족할뿐더러 시민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포항시 공원현황을 보면 도심 군립공원이 1개소 8,509,000m², 도시자연공원이 8개소 6,347,000m², 근린공원이 3,753,000m², 어린이 공원이 276,000m²에 135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공원 전체면적이 19,875,000m²로서 행정구역 면적의 1.8%에 해당되며, 군립공원이 42.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다음 도시자연공원이 31.9%, 근린공원이 18.9%, 어린이 공원이 1.4%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 포항시 도시과 제공.

시민의 보건휴식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최근 개장된 환호시민공원은 휴식공간을 갈망하던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도심 한쪽에 치우쳐 제한된 시민이용도를 보이고 있으며, 단조로운 시설형태로 단순한 여가활용에 그치는 공원으로서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도심의 속박에 벗어나 자연생태를 체험하고 건강생활을 통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조성된 경상북도 수목원은 포항시민들에게 많은 여가활동을 도우고 있으나 접근성이 불리하여 이용에 한계성을 두고 있다.

그리고 공원현황은 도시계획상 공원 및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을 뿐, 공원의 조성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고 현재 조성된 공원은 전체 공원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공원녹지가 시 외곽에 분포하여 접근성이 불량하며 지역주민의 여가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 지역상 건물용지 활용하고 있어 공원개발에 애로가 많은 지역이며, 그 분포도 시가지 외각에 입지하고 있어 접근성이 불리한 공원녹지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포항지역의 시민휴식공간의 절대 부족 및 도심지 소공원 개발 장애를 극복하는 동시에 포항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유적으로 인하여 도시 확장에 장애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가지 외곽에 위치한 4개 읍성 문화재를 시민휴식공간인 동시에 문화학습 체험 장소로 조성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한다.

포항시에서 최근 인간다운 시민생활 보장으로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도심 녹지 공간 확보 등 시민 휴식 공간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활용 가능한 토지를 공원으로 고정하는 것 보다 다른 용도로 이용이 불가능한 문화유적을 보존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학습장으로 휴식공간으로 역사 체험공간으로 확보하는 본 대안이 더욱 진보적인 추진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단순한 여가활용을 위한 기존 공원목적의 한계를 넘어 여가를 즐기는 동시에 역사문화를 체험하는 역사문화 체험 장소로서 공원조성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성방안을 제시하면, 포항 시가지에 위치하고 있는 환호시민공원과 시가지 주변의 4개 위성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읍성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 조경시설기준 ⁶²⁾ 【우리민족에게 자연은 만물을 생성하고 구제하는 절대자이며 가장 순수한 이상이었다. 그러기에 자연 공간 속에 인공의 구조물을 조영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한국의 조원(造苑)은 인공적 조영물을 속된 것으로 생각하여 모든 것을 자연에 잘 동화시키고자 하는 생각에

62) 한국토지공사. 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 한국토지공사. 서울. 2002.

따라 조영된 것이다. 조형물은 자연과의 조화와 순리가 기본질서로 존중되어 조영의 원리가 되었다.】에 적합한 문화 휴식환경을 자아낼 수 있도록 하며 1도심 4부도심의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20) 역사 문화공간 조성도

홍해읍에는 남미질부성, 오천읍에는 고현성을 비롯한 호동 고분군, 그리고 연일읍 등 공단지역은 영일읍성과 남성재실, 마지막으로 동해면 지역에 골프장과 연계된 장기목장을 활용한 레저공간의 4개 부도심 지역의 문화유적을 적극적인 보존을 위한 활용방안으로 시민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들 역사유적들을 시민들의 휴식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하여 문화재가 지닌 역사 환경을 복원하고 다듬는 동시에 문화재 훼손 방지에 주안점을 둔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홍해 남미질부성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연일읍의 영일읍성과 오천읍의 고현성, 동해면 장기목장은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포항 지역 사를 대표하는 갖가지 문헌에 수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을 비롯한 학계 등에서도 강력히 보존하여야 할 자료임을 주장하고 있는 등 그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는바, 성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개발 사업이 엄격히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이 위치한 토지가 사유토지일 경우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의 헌법의 기본권인 소유권에 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실례로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홍해읍 남미질부성의 토지소유자 1,200여명이 문화재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서류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비롯하여 문화재청, 도청, 시청을 통하여 호소한 적이 있었다. 물론 결과는 문화재위원들과 현장 재점검 등의 과정을 거쳤으나, 문화재로 더욱 보존대책이 요망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또한, 동해면의 장기목장은 인근의 골프장 허가신청에 따라 장기목장성에 대한 유적이 파괴될 현실에 있다. 물론 성의 일부는 보존시킬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문화재로서 개발의 원성을 싸고 관리는 뒷전이고 흉물스런 옛것을 치유될 것이다.

물론 문화재 지정취소가 불가 할 시 해당 토지를 국가에서 매입하여 보존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국가에서 매입을 한다고 할지라도, 토지소유자들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고향을 버리게 될 뿐더러, 보상이 합의에 많은 진통이 예상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들 성은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 권리행사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현재 남아 있는 성곽외부에서부터 내부에 이르는 다양한 옛 성의 분위기를 연출하면서도 해당 지역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소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최근 포항시에서는 첨단과학과 인간 중심의 살기좋은 포항건설을 위하여 도심남쪽의 형산강, 동빈내항 지역과 도심 북쪽을 연결하는 거대한 U자형 그린라이프(Green-Life)지대를 구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포항시민들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포항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의 부재를 말하여 주는 것으로 이러한 공간조성을 위하여 새로운 부지마련에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를 지정된 자원들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게 됨으로 해서 역사체험의 공간으로서 그리고 시민휴식공간으로서 거듭 활용 될 것을 주장한다. 포항제철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오천 고현성 주변에 설치한 직원 체육공간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도21) 포스코 직원 체육공간(오천 고현성 내)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재 훼손에 대한 안전장치가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 의한 사전 문화재 보존진단을 통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휴식 공간 마련의 필요성만 강조된 채

문화재가 훼손된다면 본 연구에서 논제로 다룰 가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시민휴식공간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가 달라지겠지만, 문화재를 보존하여야 하는 전제하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성의 분위기를 최대한 엮어내면서 조강이라던가, 벤치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최소 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다지 많은 예산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원이 개장된 이후 공원 내에서의 장사권이라든지, 공원관리 인건비 등 당해 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모든 권리는 토지소유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기히 버려져 있는 토지를 활용하면서 문화재도 보존하게 되는 이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문화재 활용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장·단기적으로 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 함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도시확장 등에 따른 포항시 도시개발계획 입안시 문화재 관리부서와 관련단체 및 학계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종합박물관 건립 방안

—자연사 자료, 출토 유물, 민속문화 자료 등의 체계적 전시 보존

최근 공룡박물관, 철강박물관, 화석박물관, 한지박물관 등의 특화박물관 건립이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일정 분야의 역사적 자료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존과 전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지역의 선사, 역사, 자연사 자료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존 전시 관리하게 됨으로 해서 일정 지역을 종합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게 하는 종합박물관 건립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지역적 특수성과 지역의 역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역사유물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됨으로 해서 지역민의 자긍심과 향토애를 결집시키는 동시에 관광자원

으로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영일만을 중심으로 한 해안지역의 자연사 관련자료,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민속자료, 여러 해에 걸쳐 발굴현장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 등을 종합 전시하는 종합박물관의 건립을 추진이야 말로 한반도의 호미곶이란 특정지역의 지질, 기후, 토양 등의 자연적 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동시에 조상들의 생활양식과 도구 및 관습 등을 엿 볼 수 있는 문화유적을 동시에 관람 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한반도에서 지역적으로 특수한 영일만지역에서 출토된 각종 매장문화재⁶³⁾를 비롯하여 고래화석 및 조개화석(주 3 포항 우회도로 학천 인터체인지 연체동물화석 315점. 연일읍 달전리의 주상절리 돌기둥 등) 등의 자연사관련 자료, 그리고 이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사용되어 오던 각종 민속자료 등을 한곳에 전시, 보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종합박물관을 건립을 영일만 호미곶에 건립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도22) 종합박물관 조성 가능지(등대박물관 옆 부지)

특히, 영일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사, 고대, 중세, 근대, 현대역사자료를 체계적으로 전시하는 동시에 자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전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유물들을 사이버 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유물 전산화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타 지역의 역사유물과 비교분석이 용이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박물관의 설립의 당위성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언론에서도 수차례 강조되고 있으나 문제는 설치에 대한 소요예산을 둘러싼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하지만 지난 98년 포항시에서 박물관 건립을 위한 실제적인 행정적 추진이 이루어져 왔으며 당시 120억 규모의 박물관 건립계획이 가시화 되었다. 하지

63) 포항 초곡리 70건 105건, 포항 우회도로 발굴현장 도토류 및 옥석류 227점 등 15여개의 약 5천여 점

만 지역 개발의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당시 국비 5억을 지원받았으나 시비 부담에 대한 문제와 강력한 행정적 추진이 미흡하여 결국 사업이 포기된 사실이 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관에서의 강력한 건립 의지와 시민들의 뒷받침이 있었다면 건립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종합박물관이 건립된다면 또한 앞서 언급한 전국 유일의 등대박물관과 새천년 해맞이 공원, 그리고 풍력발전소와 더불어 더없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영일만의 문화유적을 연구하는 학계를 비롯하여 전국의 학생들에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경주 관광에 이은 관광벨트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서 지역경제 또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조명된다.

3. 역사체험장 조성방안

－현장학습을 통한 역사교육환경 조성－

문화재의 보존과 계승은 곧 민족문화의 보존과 계승이라 하겠다. 보존은 이미 있는 것을 갈무리하는 일이다. 문화재를 보존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화재를 잘 갈무리해서 남기자는 뜻이다. 하지만 보존의 목표는 오래 갈무리하는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문화를 고스란히 갈무리하되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지역의 전통 문화를 지치는 일이다. ⁶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한 포항으로서 휴식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95년 임야로 형성되어 방풍림 역할을 하던 환여동 임야를 개발하여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였다. 방풍림의 역할과 시민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던 무성하던 임야를 시민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에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즉, 시민공원으로서 전술한 4개 시민휴식공간 조성과 더불어 다음의 문

64) 심진섭. 초등학교 사회과의 문화재 교육 활성화에 관한 연구. 관동대 석사논문. 2001. 22페이지.

화유적을 자연학습장과 역사교육 체험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문화재도 지키고 역사도시로서 거듭나고 도심속의 산림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는 관점에서 다음 자원들의 현황을 조사해 보았다

1) 국가지정 사적386호 「장기읍성」

—성내 주민생활을 읍성 조성당시 생활상으로 재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에 자리한 장기읍성은 이 고장의 진산인 동악산에서 동쪽으로 뻗은 등성이에 있으며, 구릉 아래쪽으로는 장기천이 동해로 흘러 들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 읍성은 일찍부터 울산의 처용암 지방, 울주군 강동면 정자리 지방, 양남면 수녕지방 그리고 감포, 흥해 칠포지방과 더불어 삼국시대에서부터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서라벌을 침공하는 왜구를 방어한 군사기지로서 역할을 다 한곳이다.

장기읍성이 우리나라 다른 읍성들과 차별성을 갖는 이유가 우리나라 보편적인 읍성은 평지방평의 읍성이고, 평지나 평지 가까운 곳까지 에워싸서 읍성을 쌓은 것이 전형적인 방식이나, 이곳 장기읍성은 산성적 위치에 쌓은 읍성으로 위치는 산상이나 기능은 읍성의 기능으로 훼손이 비교적 적어 지난94년 국가지정 사적386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장기읍성은, 일부 보수를 거쳐 환경을 정비한다면 국방으로서의 어떤 유적보다 완재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나라 축성사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축성사 연구에 더없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우암 송시열, 다산 정약용이 귀양살이 한곳이기도 하면서, 성내에는 향교가 완전히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읍내 및 다른 촌락과도 분리된 생활권으로서, 군사적 요새로서의 지리적인 조건을 갖춘 표본인 이곳 국가지정 사적 386호 장기읍성을 외구 침입 당시의 생활사로 복원하여 관광 상품으로 개발 하자는 것이다.

현재 일부 보수가 이루어져 학생들을 비롯한 읍성 연구를 위해 발길이 이어

지고 있으며, 이곳에 거주하는 16호의 농가는 주로 성내에서 전답 경작을 주 소득원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91년 4월경에 지표조사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99년 2월에 복원공사에 착공, 현재에 복원 공사 중에 있는 실정으로 다음과 같은 보존대책을 제시코자 한다.

먼저, 일부에 대한 보수를 거쳐 환경정비를 함으로써 성을 복원하고, 다음 복원된 성에서 당시 외구들이 침략하여 성을 방어하는 인조인간들을 곳곳에 설치하며, 성내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하여 당시의 음악이 흘러나오게 하고, 월별로 이와 관련된 전통행사를 개발, 재현하게 한 한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이다.

평상시에도 이곳에는 고려 조선시대의 음악이 흘러 나오고, 거주민들도 전통복장을 하고 있으며, 곳곳에는 당시 외구의 침입에서의 역할 설명 상황판이 있어, 당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응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바, 이곳은 기 문화재로 지정되어 건축물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만큼, 향후 계속 농사를 짓는 정도밖에 활용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이에 따른 민박촌 운영이라던 지 장사 등으로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고, 이곳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통 민속 마을로 지정 받아 국비 및 지방비로서 일부 지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읍성이 전통문화마을로 개발되어 조성된다면 이들 문화재 자료들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 홍보함으로써 고도 경주에 이은 관광코스로 경주와 연계한 관광벨트화가 추진된다는 것이다.

장기읍성의 활용이 자칫 관광자원이 목적이고 보존은 퇴보가 아니냐는 반문이 나올 수도 있으나, 이렇게 활용하다보면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읍성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현 상태에서 방치되는 것보다 읍성이 훼손된다거나 잘못 보존된다면 지적하고 걱정하면서 좋은 보존방향으로 유도되어 나갈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이에는 역시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나, 현재 성 복원을 위하여 매년 2억5천이 지원되고 있으며, 향후 4-5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가 되어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국가단위의 전통 민속마을로 육성하여 국비확보 및 지방비 보조를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전통마을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산이지만 동시에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정주공간이다. 65)

따라서 주민들에 의한 문화재 보존관리의 상향적 문화유적 활용정책을 행정관서에서 지원하는 자발적인 보전대책이 요구된다.

2) 홍해 제남헌

-관아풍습도 체험 및 전통혼례식장 프로그램 운영-

홍해군의 동헌건물이었던 제남헌은 1925년 원래의 자리에서 동남쪽 70미터 떨어진 구 홍해읍사무소로 이건하여 홍해읍 회의실로 사용하다가 1976년에 다시 원래의 자리인 현 위치에 이건하여 현재 “영일군민속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66)

앞서 논술한바와 같이 영일만을 대표하는 문화재를 총 망라하여 전시 보존할 수 있는 종합박물관이 건립되고 현재 영일민속박물관에서 전시 관리중인 유물들을 이관하게 된다면 제남헌 건물을 홍해군 당시의 관아 형태로 복원하여 다양한 문화 체험의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본 제남헌을 동헌건물의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과 복장 운영주제 설정 등을 갖추고 원님이 되고 하급관리가 되고 백성이 되어 당시 관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여 각 급 학교 및 기관 단체

65) 김성진. 고가 종택 전통마을의 보전적 관광자원화 방안. 한국 관광연구원. 2001. 22페이지.

66) 우리고장문화재, 포항시, 2004

등에서 관아 풍습체험의 장으로 활용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탈선 청소년이 늘어나고 이혼 가정이 증가하는 현대적 사회 병폐에서 전통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팽배해 지고 있는 사회적인 추세에서 전통문화에 대하여 막연하고 피상적인 접근보다 직접 몸소 체험함으로써 느끼는 교훈과 감흥이 클 것이란 점에서 이 제남헌 건물을 전통 혼례장으로 활용함도 검토하여 봄직하다.

영일민속박물관의 전체 구조를 보면 제남헌이 남향으로 위치하고 우측에 전시실이 80여명이 있으며, 좌측에는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시골집을 연상케 하는 연자방아집이 위치하고 있다.

제남헌을 배경으로 정면에 병풍을 둘러 예식장을 마련하고 오른쪽 전시실은 행사 음식을 준비와 손님을 맞는 접견장소, 왼쪽 연자방아집에는 신랑 신부 대기실을 만들어 700년이 넘게 제남헌을 지켜온 휘나무 아래서 전통혼례식순에 의거 엄숙한 혼인을 한다면 더 없는 문화체험인 동시에 성스런 혼인식이 될 것이다.

현재 영일민속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남헌은 많은 관람객의 무분별한 관람행위와 문화재에 대한 애호의식이 결여된 관광자원으로 평가하는 이들에 의하여 안전한 보전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최대한 제남헌의 원형을 지켜가는 범위 내에서 전통혼례라든지 관아 체험 프로그램 연수든 문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 활용은 문화재 보존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다고 생각한다.

3) 영일 일월지

포항지역은 포항종합제철과 더불어 해병부대가 성장해온 곳이며, 포항시민과 함께하는 해병 부대 내에는 포항을 상징하는 일월신화의 유적지가 소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포항이 속해있는 지역은 해를 맞이한다는 영일

(迎日)군에 속해있는 곳으로 우리나라 해맞이 국가지정지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이렇듯 포항지역이 해와 달의 고장으로서 해맞이 국가행사장으로 지정된 데에는 연오랑 세오녀 설화가 얹힌 일월신화가 뒷받침하고 있다. 이 설화에는 영일현(迎日懸) 혹은, 도기야라는 곳의 지명설화가 있는데 이 지역은 현재의 포항시 남구 일월동(해병부대내 소재)에 있는 일월지(日月池)가 그곳이다.

일월지에 대한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과거에 유적지 일부를 매립하고 훼손하였으나, 최근에는 문화재 관리부서와 해병부대에서의 적극적인 환경정비를 통하여 문화유적지로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된 아름다운 유적보존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경상북도 기념물 제120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2만7천여평 규모의 일월지는 군부대내에 소재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함은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군부대에서 환경정비를 우선하여 문화유적에 대한 훼손에 대한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일월지 동산에 대한 시민들의 체험 기회제공과 더불어 시민들이 문화재를 보호하는 감시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월지가 군부대내에 소재하고 있어 일반인의 내방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에서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체제와 보완정비를 강화하여 일월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여야 할 것이다. 포항 지역사회 발전과 해병부대는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문화유적 보존과 활용에 대한 일월지 개방에 대한 접근도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월지동산 주변에 신라 제8대 아달라왕(157) 당시의 역사 문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통음악을 흐르게 하고 연오랑 세오녀의 생활상을 재현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와 달에 얹힌 전통설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제 여건을 조성

한다.

이와 아울러 포항과 함께해온 해병대의 해병역사를 관람케 하는 해병대 역사관을 개방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군 장비들을 전시하는 행사를 함께한다. 그리고 일월지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1천여그루의 벚꽃들과 영산홍, 개나리, 장미들로 둘러진 일월정과 구름다리, 인근의 해룡사로 어우러진 전설의 못, 일월지는 그야말로 역사문화공간으로서 그리고 포항시민의 휴식처이자 역사교육장으로 나아가서 이색적인 관광자원으로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월지 옆에 위치하고 있는 해병부대 연병장은 축구장 8개를 합쳐놓은 동양최대 규모로서 상륙 장갑차, 상륙 고무보트, 전차와 자주포, 박격포 등의 전투 장비를 전시하고 여기에 해병대 의장대와 군악대 시범이 펼쳐진다면 볼거리 제공과 체력단련 장으로 환상적인 휴식공간이 될 것이다.

이는 일월신화의 역사적 체험장과 군부대 장비전시 행사 등의 새로운 테마 문화관광지로서 시민들의 산 교육장으로 거듭 남과 동시에 일월지 문화유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더불어 문화재 보존에도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기계 문성리 새마을 운동 발상지

새마을 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관 건립 및 문화재 지정추진-

지금에도 근대문화유산의 대상에 속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도시계획,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 개축되거나 멸실되고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그 중에는 도시재개발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높이기 위해 멸실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기능과 용도의 필요성에 따라 기존의 건조물, 시설물, 구조물 등이 멸실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노후하여 유지관리가 어려워 멸실되는 것도 있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 대표성을 띤 것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보존, 보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7)

포항 지역내 이러한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북구 기계면 문성리는 지난 1970년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에 이은 초기 민주주의 부패정치로 국민의 생활환경이 극도로 어려운 시절 우리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근대화시킨 범 국민운동의 발상지이다.

새마을 운동이 기계면 문성리를 중심으로 발원된 것은 포항 내륙의 근면정신과 미래를 지향하는 포항인 특유의 개척정신과 세계 속의 철강도시 포항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이 조화를 이룬 우리 지방의 자랑이자 우리나라 근대화의 표상이다.

최근 다양한 정치여건에 따른 국론 분열현상과 물질문명에 소산인 개인주의의 팽배, 그리고 기계화에 따른 인간성 상실 등 제반 사회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서 신 새마을 운동에 대한 정신적 계승에 많은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새마을 운동의 재인식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동시에 국외에서도 새마을 운동에 대한 관심과 새마을 운동을 배워가기 위한 방문도 잦아졌다.

최근 경상북도 새마을회는 경상북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의 새마을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멘트 만오천포대와 손수레 등 농기구 1억여 원어치를 보내기로 하였으며, 경상북도도 타이응우옌성 룡반마을 지역에 새마을 시범마을을 조성하기로 하고 새마을 회관 건립과 농수로 설치, 전기시설 교체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 지도자와 관계공무원 30여명을 국내로 초청해 새마을 정신교육과 영농기술 전수 등 새마을 교육을 시켜가기로 했다.

국내외에서 새마을 운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새마을 운동의 근원지인 문성리 새마을운동 기념물들에 대한 재조명과 아울러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67)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문화재청. 2000. 17페이지.

있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보존대책과 동시에 관광자원화 추진이 이루어진다면 문화재 보존의 적극적 관리가 될 것이다.

현재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문성리 현지에는 기념비만이 덩그러니 위치하고 주위에는 농사용 폐기물 등에 노출되어 언제든지 훼손의 우려는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라도 문성리 입구에 새마을운동 발상지 안내판과 더불어 새마을 운동의 근본이념과 주요 활동사진, 성공 사례, 새마을 운동 연구 논문 등의 사진물과 기록물들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기념비가 서있는 주위에 대한 보호책을 설치하는 동시에 그야말로 새마을을 만든 문성리 자체에 새마을 운동의 완성을 실감할 수 있는 환경정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사전 준비가 된다면 새마을 운동의 정신을 본받으려는 국내외 수요자들의 자연스러운 방문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지며, 이는 근대화 이후 우리나라 최대의 국민운동인 새마을 운동의 문화유산을 지켜가는 길일 것이다.

5) 연일읍 달전리 주상절리

포항의 주상절리는 그 형성시기가 신생대 제3기 즉 약 200만년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국내 다른 지역의 주상절리 형성시기가 신생대 제4기, 즉 약 30만년 전으로서 그 발생시기가 매우 앞서는 것으로서 그 특이성이 있으며, 또한 약 20미터 수직방향으로 연장되는 돌기둥의 모습은 국내외 보기 드문 구조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정되어 지난 2000년 5월에 천연기념물 제415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당시 현장을 방문한 경상북도문화재위원인 양승영교수는 “주상절리가 아주 특징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교과서에도 충분히 실릴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귀중한 자연문화 유산이 사유재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호책 설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태풍 내습에 따른 지반유실과 근거리 폐통된 포항우회도로로 인한 진동으로 붕괴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이며 수석수집가들의 불법 채취에 무방비 상태이다.

이 주상절리에 대하여 문화재를 보존하는 동시에 학생 학습장으로 활용 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주상절리가 위치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 조속한 기간 내에 보상을 완료하여야 할 것이다. 지정면적 32,651㎡에 대하여 국 도비를 지원받아 시비를 포함, 489백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조기에 확보하여 4명의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이 완료되어야 것이다.

보상이 완료되면, 자연학습장으로 활용과 현장 체험방문 그리고 보호책 설치(85백만 원 소요예상) 등을 위한 진입로를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진입로 정비와 아울러 방문객 주차장과 화장실 시설 및 관람료를 설치하는 동시에 안내판 설치 및 이정표 정비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태풍과 진동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보호책 설치와 차량속도 제어 등의 보존 대책도 동시에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 내 학생들의 야외 관찰 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지질 학계 연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며 인근 달전지와 연결된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포항시민의 휴식처로 가꾸어 갈수 있다고 보여진다.

6) 구룡포 일제식 건물단지

도시환경의 보존은 그 안에 포함된 단위 건축물의 역사성 및 상징성 장소성의 보존을 뜻하며, 사회의 물리적 변환과정에서 자율적 혹은 타율적으로 받아들여진 구체적 표현의 보존을 의미한다. 따라서 역사적인 건조물의 보존과 재생은 그 도시가 이룩한 역사적인 도시공간 속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라 하겠

다. 68)

한반도의 역사에서 일본을 배제할 수 없는 지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포항지역은 일월신화의 연오랑 세오녀 전통설화 등 다양한 문화적 교류가 있어왔다. 일찍이 우리의 선진 문화를 전래시키기도 하였으며 근대에 들어와서는 우리민족의 수난의 시기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민족이 일제 수탈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일제 강점기에 대한 역사적 증거물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이들에 대한 존폐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 있다.

이 지역은 바로 포항시 호미곶 인근 구룡포 이다. 도24) 구룡포 일본건물 보존전경. 일제 강점기에 건립된 일본식 목조건축물 80여동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어 일본 거리를 연상케 한다. 구룡포 해안도로에서 골목 안으로 들어서면 300여 미터의 거리에 일제식 목조건물을 비롯하여 당시 일본인들이 신사참배를 하던 흔적이 나타나며, 신사 자리에는 용왕당과 충혼각이 설치하여 보존되고 있고 일제 강점기에 항만사업을 위해 건너온 일본인중 한 지식인이 지방에서 정치망 어업 등 선진 기술을 전파하였다는 비석이 존재하고 있고 일제시대 건립된 사찰도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일제식 건물들로 하여금 일본과 관련된 영화 촬영을 하기 위하여 현지를 찾거나 학교 학생들이 교육적 현장학습장 그리고 일제식 거리를 관람하기 위한 관광객 그리고 자신들의 선조가 머물다간 만큼 이곳을 찾는 일본인들도 적지 않게 찾는 곳이다.

일본과는 지리적 연접 성으로 인하여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한 교역을 진행하는 반면에 최근 일본의 독도 침탈망언을 비롯하여 교과서 왜곡 등으로 인하여 일본에 대한 외교단절까지 결심하고 있는 첨예화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잔재를 청산하자는 여론에 힘입어 구룡포의 일본식 거

68) 박용철. 근대건축물 보존규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2002. 22페이지.

리를 없애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어느 나라의 역사이든 국운의 흥망성쇠에 따른 다양한 증거물들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받아들이면서 역사에 대한 진실을 바로 알고 교훈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문화재를 보존하는 근본정신과 통한다.

사회 경제적 발달과 문화적 수준이 상승에 따라 문화재를 느끼는 사회적 가치관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다양한 삶의 변화하는 행위를 수용하고 있는 근대 건축물도 삶의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문화재가 될 때 그 역사적 가치를 느끼며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수 있을 것이다. 69)

이러한 견지에서 구룡포의 일제 강점기 건물이 형성된 거리를 청산할 것이 아니라, 거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이해 할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낡은 건물에 대한 보존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민족의 아픈 역사지만 우리가 안고 가야하는 역사 증거물로 보존되어야 한다.

나아가 우리에게 다시는 이러한 치욕적인 역사적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육적 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4. 문화유적지 체험단 운영

문화재를 보존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조상들의 삶의 예지와 숨결을 후대에 서 배우고 널리 보존하는 것인 만큼 현세대에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강조되고 있다. 문화재 활용과 보존에 관하여는 서로 상충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때도 있었으나, 최근 문화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보존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본고에서도 나름대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각 지역마다 지역 형성과 관련된 각종 문화유산들이 산재되어 있으며, 이들

69) 김동석. 근대건축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청주대 박사논문. 2001. 166페이지

개별 문화재마다 전달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는 특수성을 가진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보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는 교훈적 유산들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이 중요하며 역사고도에서는 나름대로 시행중에 있다고 본다.

포항지역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일만이란 지리적 특수성과 신라의 해안 변방기지, 유배지 등으로서 역사적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성 있는 문화유산들이 산재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화유산들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체험코스를 개발하여 시민들은 물론 포항을 찾는 관광객, 그리고 각 급 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적 체험 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포항은 호미곶 관광단지와 등대박물관 등과 연계한 관광코스, 국가지정 사적지인 장기읍성과 장기목장 등의 해안방어 유적지 학습코스, 경북 최대의 재래시장인 죽도시장과 구룡포 어판장의 해양코스, 포항제철과 방사성 가속기 등의 첨단산업시설 견학코스, 동해안 일출의 명소인 새벽 해맞이 관광코스, 연일읍 달전리의 주상절리 돌기둥과 조개화석 등의 자연사 관찰코스 등의 계층별 다양한 체험단을 구성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고장이다.

자연사와 관련된 체험코스과 일찍부터 발달한 농경문화와 관련된 민속유적지 체험코스, 해안 변방의 군사기지로서의 군사유적지 체험코스 등 다양한 문화유산들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단을 상시 모집 운영함은 문화유적에 대한 시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애호정신으로 문화재 보존에도 적지 않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5. 1사 1지역 문화재 보호운동 전개

포항은 일찍이 포항제철과 성장을 같이해온 철강 산업도시로서 제철과 관련

된 많은 기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도시이다. 포항이라 하면 포항제철이 상징적으로 도시 이미지를 대변하는 삭막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연오랑 세오녀의 일월신화 설화가 서려있는 유서 깊은 고장으로 많은 역사문화유적들이 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산재된 자연유적과 경관들로 역사문화도시이기도 하다. 역사문화도시와 산업도시는 서로 이질적인 도시구조로서 서로 배타적 생활환경을 자아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든 각 지방의 고유한 역사적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으며 그 역사적 바탕위에서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철강 도시니 섬유도시니 교육도시 등의 도시 특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포항이 철강 산업도시라고는 하지만 오랜 역사와 선조들의 유물유적이 어느 지방에 뒤지지 않는 풍성한 자원을 가진 역사도시이다.

이러한 역사도시들도 도시의 현대화를 지향한 특성화 과정에서 각종 기업체에서 지역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현대 사회적 병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지역사회 발전에 공조하면서 지역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인식시키며 자연부락 자매결연 추진, 지역 개발사업 참여, 시민축제 후원 등으로 참여하고 있다.

포항지역에서도 포항제철을 비롯한 지역 기업체들은 포항지역에 공해, 소음, 교통, 수질악화 등 각종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지역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각 지역의 자연부락과 자매결연을 맺어 지역민들과 유대를 지켜가고 있다.

자매부락에 대한 잔치마당, 농어촌 일손돕기, 마을 대소사 참여, 각종 재해복구 및 예방대책, 경로잔치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기업들이 지역민들과 유대를 강화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조하는 아름다운 현상을 문화재 보호 관리를 위한 결연사업으로 접목시킨다면 그야말로 지역사랑과 연계한 문화재사랑운동이 이루어 질

것이다.

각 기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부락 자매결연사업에 문화재 보호 관리를 추가하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각 기업체에서 결연중인 자매부락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들과 자매결연을 맺은 기업체가 합심하여 문화재에 대한 변형과 훼손, 파괴 등으로부터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재별 특성에 따라 제를 올리는 문화유적에 대하여는 제를 모시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문화재 주변에 대한 청소 및 보호 관리를 하는 동시에 보호책 설치 및 보호안내판 설치, 마을의 정신적 구심체로서의 상징적 존재로서의 가치 부각 등의 문화재 사랑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1기업체 1마을 문화재 보호 관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견인차 역할도 중요하다. 각 마을별로 문화유적에 대한 정확한 분석자료와 해당 문화재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범위, 그리고 보호 관리에 따른 준수사항, 명예 관리인 선정, 문화재관리 정보교환 창구 설치 등 다양하게 중계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 지역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알고 지키고 활용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자매결연을 맺은 기업체와 문화재 보존관리를 맡은 행정부서에서는 지역민들을 선도하여 지역 내 문화재는 지역민에 의하여 지키고 보존하자는 취지로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6. 포항의 정신문화의 상징 “연오랑세오녀” 뮤지컬 제작

연오랑 세오녀 설화는 단군신화가 한국문화와 한국사상의 근원이듯 포항문화의 뿌리이며 포항정신의 요람이다. 70)

70) 배용일. 고려대 사학과. 포항1대학교수.(和信)

포항은 (구) 영일군의 소도시였으며, 포항은 영일만으로 둘러져 있는바, 영일(迎日)은 해를 맞이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해와 달의 생성에 관한 설화로서 포항지역에서의 상징적인 전통설화인 일월신화에 어린 ‘연오랑 세오녀’는 신라 제8대 임금 아달라왕 때 연오랑과 세오녀에 관한 설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설화에 따르면, 신라초기 동해 바닷가에 살고 있었던 연오랑과 세오녀 부부가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 사람들의 추대를 받고 왕과 왕비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선진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신천지 개척의 역사적인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연오랑 세오녀가 일본에 건너간 후부터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는 이야기에서 연오랑 세오녀 부부는 해와 달을 상징하는 훌륭한 인물이었으며, 이들 부부가 살았던 지역, 즉 영일현 도기야(현재의 포항시 일월동) 등 해와 달의 고장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일본으로 건너간 연오랑을 그의 아내인 세오녀가 일본까지 찾아가서 재회를 하였고 세오녀가 짝 비단으로 조국 신라로 보내서 신라에 다시 광명을 찾았다는 부분에서는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숭고한 조국애를 느낄 수 있는 포항지역의 문화적 우수성을 담은 설화로서 현세대에 귀감이 되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정리하자면, 우리 민족이 일본 땅을 개척하여 통치자가 되고 일본과 신라의 교류사실을 통하여 이곳 포항지역은 일월의 제천제의 본거지임과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이 배어 있는 포항만이 전통설화는 포항시민의 자랑이자 정신적 지주로서 포항발전의 등불이다.

이러한 포항지역의 고유하고 소중한 정신적 문화유산을 지켜가고 본받기 위하여 연오랑 세오녀상 건립과 해맞이의 고장으로 해맞이 국가행사 지정지 유지 및 일월신제의 지속적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으며, 관심 있는 일부 기관 단체나 행정기관의 한정적인 전시행사로 조형물 설치 등 시각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못내 아쉽다.

이에 연오랑 세오녀가 우리 후손들에게 주는 정신적 문화유산으로서 시민들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창작 뮤지컬 연오랑 세오녀」를 제작하여 시민들은 물론 국내외 포항을 알리는 홍보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해와 달의 고향으로 알려진 포항지역의 전통설화인 연오랑 세오녀를 창작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킴으로서 포항인의 자긍심과 향토애를 결집시키는 동시에 포항인의 정신적 구심체로 활용키로 한다.

이렇듯 포항을 대표하는 포항만의 상징적인 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포항 지역주민에 의한 작곡과 시립예술단과 연계한 포항 지역 예술인들로 구성된 순수 지역민에 의한 공연단을 구성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품이 완성되면 포항지역에서 포항시민들을 위한 연중 무료공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포항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포항인 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적극적인 매개체로 활용한다.

또한, 각 급 학교 학생들에게 향토 사랑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동시에 각 지역 향우인 들을 위한 기획공연의 기회제공과 시민 위안의 마당에 공연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국 각 지역에 순회공연의 기회와 해외 자매 우호도시 출장공연을 가짐으로서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국내외 알릴 수 있는 예술적 외교역할과 포항 지역의 정통성을 자랑할 수 있는 동시에 고유한 포항의 전통설화를 간직하고 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7. 경주권 신라문화관광객 유치 및 관광벨트화

-대보 국민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포항제철, 재래전통시장 등 연계-

고속전철 및 구미 포항간 고속도로, 건천 포항간 국도가 개통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울산 삼척간 동해중부선 부설, 국도 7호선 및 28호선 확장, 포항비행기장 확장 등 추진 중인 각종 교통망 사업으로 포항의 관광객 접근성은 전국에서 2시간 범위내로 단축되어 확연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영일만이 둘러싸고 있는 포항은 한반도의 꼬리부분의 자연지리적인 특성에 따라 자연사 관련 유적을 비롯한 104킬로미터에 달하는 그림 같은 해안선, 해가 가장먼저 뜨는 해돋이 고장으로서의 관광자원은 내륙지방의 도회인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연오랑과 세오녀의 전통이 서린 역사도시, 첨단 과학시설인 방사광 가속기와 철의 제련과 생산과정을 한눈에 볼수 있는 포스코와 포항공대로 이어지는 첨단과학도시, 죽도시장과 구룡포 어시장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의 회 및 제공 해산물의 고장 등의 많은 관광자원을 가진 곳이다.

여기에서 산성적 위치에 쌓은 읍성으로서 위치는 산상인데 기능은 읍성으로서 읍성의 역할을 하였던 장기읍성을 비롯하여 본고에서 주장하는 종합박물관, 새마을운동 발상지, 일월지, 등의 문화유적들은 관광의 극치를 맛볼 수 있는 자원들이다.

이러한 관광자원은 타 지역에 비하여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차별화 개별화된 관광산업으로 포항지역만이 지닌 특성과 강점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장점이다

이런 관광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관광벨트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문화유적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는 보존에 대한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으나 문화재 보존의 궁극적인 목적인 보급선양면에서는 적극

추구되어야 한다.

문화유적에 관심 있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찾아드는 관광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보수정비에 예산을 지원하며 이에 따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면서 지역민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게 됨으로 인하여 문화재에 대한 보존의식이 생겨나며 이는 결국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지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게 한다.

여러 관광체험 코스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는 다음과 같은 관광체험코스를 제안한다. 즉, 천년 고도 신라를 찾는 국내외 많은 관광객을 포항으로 이어지는 관광 벨트를 형성하는 것이다. 도23) 포항문화유적 관광벨트화 개발 계획도

고도 경주의 신라문화 관광을 마친 관광객들에게 포항관광 메리트를 소개하는 안내판 및 홍보물 등을 경주관광지 곳곳에 비치한다.

불국사와 보문단지 관광을 마친 관광객들이 덕동호를 감싸 안는 쾌적한 들길을 지나는 동해안 국도를 통하여 감포바다로 안내하게 된다. 울산에서 감포, 구룡포를 지나는 동해안의 절경을 감상하면서 양포에 이르면 포항으로 향하는 906번 지방도를 타고 10여분 거리에 장기읍성을 찾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이곳 장기읍성은 삼국시대에서부터 조선조에 이르는 동안 외세의 침략을 막는데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한 읍성으로서 산상에 위치하면서 기능은 읍성인 국가 지정 사적 389호인 장기읍성을 관광하는 기회를 갖는다.

장기읍성에서 다시 양포로 양포에서 구룡포를 지나 한반도 호랑이 꼬리부분으로 국가지정 해맞이광장인 호미곶 관광지를 만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일출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국토의 최동단으로 지난 2000년 해맞이 국가행사를 치룬데 이어 국민 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연오랑 세오녀상과 이육사 시비, 풍력 발전기 설치 등을 비롯하여 성화대, 영원의 불, 상생의 손은 해마다 관광객을 몰고 오는 자원이 되고 있다.

그리고 광장의 북편에 접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등대박물관인 장기곶 등대 박물관은 지난 2001년에 새로이 단장을 하고 호미곶 관광지의 주요 자원을 손꼽히고 있는데 학생들을 비롯한 해양문화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본고에서 주장하고 있는 종합박물관의 건립위치를 이곳 호미곶 관광지내 공터로 남아 있는 국유지를 지목하고 있는 만큼, 관광지로의 가치는 그야말로 더욱 환상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대보국민관광단지로 지정된 이곳이야 말로 해맞이 국가 행사장으로서, 전국 유일의 등대박물관과 영일만의 역사를 한눈에 보고 느낄 수 있는 종합박물관, 그리고 한반도 호랑이의 꼬리라는 지리적인 상징성이 어우러져 최적의 휴식과 교육적 관광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다음 호미곶 관광지에 이어 해안을 따라 굽이쳐 돌아가는 영일만의 끝자락의 이음 같은 푸르름의 시원함과 바다와 조각배가 걸려있는 한가한 어촌, 검푸른 소나무들 사이에 예뻐를 뽐내려는 이름 모를 산꽃들이 어우러진 산촌, 어깨에 삽을 멘 농부와 머리엔 수건이 풀어질 듯 얹혀있는 아낙들의 포근함이 배어 있는 농촌들이 그림같이 펼쳐지는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는 여행의 짜릿함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포항 시가지에 접어들게 되면 아시아 최대의 철강회사인 포항제철이 자리하고 있다. 포항제철에 대한 설명은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포항제철의 관광기회를 가질 수 있는 코스임을 일러두고 싶다.

다음은 경북 최대의 재래시장인 죽도시장을 코스에 넣고 싶은데, 죽도시장은 항구도시인 포항을 상징하는 각종 회를 선선하게 즐길 수 있는 동시에 각종 진귀한 향토 생산품들을 보고 느끼게 하는 곳으로 여행의 즐거움을 듬뿍 전해 줄 것이라 생각하며 이 또한 관광벨트상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하고 싶

다.

다음은 잘 알려진 내연산 보경사를 비롯하여 경상북도립 수목원을 거쳐 영일 냉수리 고분 등을 찾는다면 영일만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풍물을 맛볼 수 있는 관광벨트가 형성될 것이다.

이는 문화재 보존적인 면에서보다 문화재 활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보았으나, 경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을 경주와 연결한 포항으로 유도하게 함으로써 이는 결국 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지역민들의 경제적 수입의 증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키워주게 되며,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증가는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투자를 늘릴 수 있어 넓은 의미의 문화재 보존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하고 싶다.

8. 문화재관리 전담기구 설치

시군구는 문화재관리 행정의 기초 행정기관으로서 문화재의 지정, 보수정비 공사의 설계 발주, 시공, 준공, 국고보조금의 신청, 집행 및 정산, 문화재 실태 조사 등 모든 문화재관련 행정의 시발점에서부터 시도를 경유하여 문화재관리 청에 이르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시작에서 마무리까지의 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군구의 문화재 관리행정 조직을 보면,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관광과, 또는 문화공보 또는 문화체육담당관실 소속하에 문화재, 문화재관리, 문화재관광, 문화예술 담당 또는 팀을 두고 있다. 233개 시군구중 문화재담당을 설치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32개이며, 대부분 문화재가 많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이다. 시군구 문화재담당 책임자는 대부분 행정주사(6급)이고 공무원 정원은 평균 3명 내외이며, 경주시가 11명으로 제일 많고, 안동시 9명, 공주시 5명이다. 그 이외의 201개 시군구에서는 문화관광, 문화사업, 문화예술, 문화체육담당, 팀 또는 계에 문화

재 관리담당 공무원 1-2명을 배치하고 있다. 71)

이와 같은 인력과 조직체계로는 문화재관리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시군구는 국가지정문화재중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등과 시도 기념물의 문화재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어느 기관보다도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인력이 부족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전 지역에 산재해 있는 매장문화재의 보호 관리에는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 도굴, 절도 등 범죄행위가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는 것은 시군구의 행정능력이 미약한 것은 근본적으로 문화재관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72)

최근 포항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빈번해짐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위한 문화재 관리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의식수준을 과감히 개선하여 최소한의 발굴을 유도하는 반면, 발굴조사로 인한 출토유물과 보고서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각종 개발사업 현장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여러 문화재관련 기관에 흩어져 보관되고 있고, 개발로 인한 구제발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문화재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문화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존관리의 미흡함을 보는 한 단면이 된다.

이러한 문화재 보존환경에 대비하여 문화재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학예사를 배치하고 전담부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으로 인한 현 상황에서 어렵다면,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인사 조치와 문화재 관리부서에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던지 하는 관리방안이 주요하나, 포항시에서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 자체가

71) 심재선, 문화재관리 행정조직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서울, 1998, 70페이지.

72) 심재선, 문화재관리 행정조직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서울, 1998, 97페이지.

한직으로 평가되고 그림에 따라 문화재 관리부서 직원이 수시 교체됨으로 인한 업무 연계성이 없는 것이 포항시의 문화재관리의 현주소이다.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영양 등의 시군에서도 학예사를 두어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천년 신라문화권에 있고, 경북 제1의 도시인 포항지역에서 학예사 한명 없이 문화재를 관리한다는 자체가 문화재에 대한 포항시의 문화재 인식도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문 인력 부족, 업무과중, 예산의 확보지연 등으로 종합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선 행정기관으로서 한편 문화재 관리단체로서 포항시 문화공보관광과 내에 문화재 전담계를 설치하여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문화재를 철저히 보존관리하고 향토문화를 전승 발전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재를 기반으로 지역관광, 경제, 문화, 교육 등과 연계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력토록 하여야 한다. 73)

또한 앞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기구의 신설은 불가피 하며, 문화재관리 전담부서에는 담당 6급 1명, 학예직 1명, 건축직 1명, 행정직 1명으로 구성된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본다.

9. 비지정문화재 보존대책

먼 선사시대부터 전해오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 관리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우리고장의 향토사를 짐작케 하고 향토애를 결집시킬 수 있는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큰 비지정 문화재들이 각지에 산재 해 있다.

이들 문화재는 관리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 관리 행정당국에서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며, 각종 지역개발사업 시행 시는 무차별적으로 훼손되는 경

73) 심재선, 문화재관리 행정조직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서울, 1998, 97페이지.

우가 많다.

이들 문화재에 대하여 후대들의 교육자료 및 향토에 결집을 위한 적극적인 보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비 지정문화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각 지역에 산재된 비 지정문화재별로 분야별 전문가를 고인돌, 봉화대, 종택 및 고가, 전적 등 회화, 조각, 공예 등 분야별 팀을 편성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지역별로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조사된 이들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 개별적으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비지정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큰 문화재에 대하여는 문화재로 지정시키는 동시에 문화재로 지정이 어려운 문화재 일지라도 각 문화재 종류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해당문화재에 대하여 개별관리자를 지정하고 해당 읍면동에서 월2회 정기순찰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문화재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문화재에 대한 훼손, 손상, 파괴 등으로부터 안전 여부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순찰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보호가 요구되는 문화재에 대하여는 문화재관리 행정관서와 유기적인 정보교환을 통하여 보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각계 시민참여 ‘지역문화보존위원회’ 구성 운영

—관계부서, 시의원 및 문화재관련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참여—

문화재보전의 실천적 과제의 하나로 주민자치에 의한 지역문화재 보호운동이 가장 효율적인 보전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74)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적 복지향상과 주민의 삶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지역문화재의 활용을 통한 향토 지역 문화 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75)

74) 정문교, 문화재행정과 정책, 문화재관리행정, 지식산업사, 2000, 118페이지

지역의 문화재는 지역주민들이 보호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볼 때, 지역민이 문화재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건설 공사 시 ‘토기조각이나 기와조각이 발견되면 아무도 모르게 덮어 버려야한다’는 것이 포항지역에서 시민들이 문화재를 대하는 단면을 볼 수 있다. 물론, 문화재 발굴 경비를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맹점이 없지는 않으나, 경주지역 주민들과의 문화재에 의식수준을 비교하여 볼 때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지역 주민들이 향토 문화재에 대한 애착을 갖고, 주민 스스로가 명예문화재 관리 위원이 되어 문화재보호 파수꾼이 되어, 지역문화재를 아끼고 보존할 때, 향토애를 통한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일일 것이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이미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개인 및 시민단체의 활동을 연계하여 서로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문화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개인 간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76)

이를 위하여 문화재보호관련 행정부서의 관계 공무원과 지역 문화전문가, 지역주민들과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 향토 사학자, 지역문화원장들로 구성된 가칭 “지역문화재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정기적으로 지역 내 문화유적에 대한 향토문화재 답사 및 토론회, 문화재 보호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며 이들 회원들에게는 문화재사범 단속 명예감시원으로 지정하여 단속권을 부여하는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75) 서정인, 향토 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재 활용방안. 공주대 석사논문. 예산 2000

76) 정병국. 우리나라 문화재보존관련 정책제안. 정병국의원실. 2002. 23페이지

본 위원회 회원으로 시의회 의원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산확보 분야에서 노력하고 관계부서 공무원은 문화재 보호에 대한 법 규정과 정보를 제공하며, 향토사학자들은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고, 시민들은 문화재 보호 감시자로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게 될 때 지역의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11. 문화재 애호단체 관리 육성

문화재 보존이라는 과제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기능에 의존하여 온전히 달성되리라는 기대는 시대착오일 수 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정부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우리 세대의 공동과제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이제는 정부-시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대가 이미 도래한 것으로 본다. 77)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범 국민운동으로서 주도는 민간단체에서 정부는 지원을 기초로 전개 하였는바, 1972년 5월 8일에 한국문화재보호협회를 발족시키고 전국 11개 시도지부와 170여개의 시군지부를 그리고 10만여 회원을 포섭하는데 대대적으로 한 달 동안 활발한듯하였으나 끝내 민간주도에 실패하고 말았다. 78)(정부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그치고 독자적 사업을 하지 못하여 유명무실한 상태로 없어지고 말았지만 간혹 자생조직체로 변신하여 활동의 밑거름이 된 곳도 있기도 하다.)

이제 문화의 세기를 맞아 경제적 풍요에 힘입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일반화되고 그 결과로 문화를 향유하려는 욕구와 활동이 증대하면서 문화에 대한 권리의식과 주인의식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77) 문화재청, 문화유산 포럼 2, 문화유산 트러스트, 가능성에 대한 생각, 대전, 2000

78) 문화체육부, 향토사와 지역문화,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원의 역할, 서울, 73페이지 1995,

이는 문화유산과 관련해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가꾸어서 후대에 전승해야 하는 시대적인 책임에 대한 자각과 반성이 폭넓게 변져나가고 있다. 이제 시민들은 매우 수준 높은 문화재 행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스스로 문화유산의 엄연한 보호주체로서 나서고자하는 실천적이고 대안적인 운동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의지와 역량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집중해 낼 수 있는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실천방법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방안이 시민운동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재행정의 입장에서든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79)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지역의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이 향토의식과 지방문화재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하여 주민스스로가 문화재 명예감시원 역할을 하면서 가꾸고 지켜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의식을 유도하고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선도 하에서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재 애호단체들을 비롯한 향토 사학자들에 의한 보존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풍족한 예산지원과 문화재관련법규의 강력한 시행, 그리고 문화재를 연구하는 많은 학교가 생기고 학자들이 배출되어야 할 뿐 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고귀한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을 국민 스스로가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각 지역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포항지역에서도 문화재 애호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다.

전국적인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지역 문화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문화원들은 향토축제, 생활문화교육, 향토자료 조사 수집과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80)

79) 문화재청, 문화유산 포럼 2, 문화유산 트러스트, 가능성에 대한 생각, 대전, 2000

그리고 포항지역발전협의회에서는 ‘포항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 역사를 정리한 책자 발간 등의 출판물을 통해서 지역 역사와 문화재 애호를 위한 시민 계도에 앞장서고 있다.

다음 동대해문화연구소는 최근 문화재 발굴허가기관으로 등록하는 등 지역 내 문화유적에 대한 총체적인 보존관리 및 보급선양을 담당하는 단체로서 많은 지역 내 향토사학자들이 정기적인 모임과 활동하는 단체이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지역 문화유적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연구하며 보존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많은 향토사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나름대로 저마다 향토문화재 보호하기 위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그에 대한 성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각계에서 벌이고 있는 문화재 보호운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인 문화재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지원과 그에 따른 일정한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정기적인 통합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문화재 보호 단체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간혹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결성된 단체나 개인들의 잘못된 보존지식으로 문화재가 되려 훼손되는 경우도 있는 실정으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 단체나 개인들을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문화재 보호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자치단체의 문화재보호단체 육성 지원책이 요구된다.

80) 서정인 향토 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재 활용방안. 공주대. 예산 2000)

VI. 맺음말

문화재 보존관리와 조사결과의 활용단계라 볼 수 있는 문화재 보급선양은 최근까지 견지해 왔던 문화재 관리 행정의 소극적인 범위였던 문화재의 지정, 보수정비, 조사연구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문화재를 알리고 활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즉, 문화재 관리를 원형 그대로만 보존하고, 도난, 화재, 자연 재해 등으로부터 예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문화재를 철저히 보존관리하고 조사 연구하여 이를 역사교육의 현장, 문화 관광 명소, 지역문화 발전의 자원 등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조사연구 결과를 대중매체를 이용한 방송, 보도는 물론 문화재 사진전시회, 전통문화 재현행사, 무형문화재 기,예능 발표공연, 학술도서 신문 안내 팸플렛 발굴보고서를 발간 배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문화재에 대한 애호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는 것이다. 81)

특히, 세계 각국은 자기 나라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지방의 풍습까지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외국 관광객을 유치, 외화획득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보급선양 행정의 양과 질을 높여 문화재와 관광을 연계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는 권고가 있다. 82)

또한, 최근 시민사회의 성장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부정책에 대한 참여 욕구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사회가 복잡화 다양화, 전문화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으로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노력만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보호운동 등 국민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81) 심재선, 문화재관리 행정조직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98.

82) 주68) 문화체육부, 한국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방안, 서울, 1997, 3페이지.

문화재보호와 관련되는 NGO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83)

문화재로 인한 주민불편으로 훼손되거나 방치되는 등의 지역문화재를 지역민들이 아끼고 보존하려는 시민의식이 우러나올 수 있는 문화재 활용을 통한 보존정책을 개발함으로써 문화재 보존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가 관광 상품으로서 자원화 되어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향토애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이들 문화재를 자원화 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민들에게 자긍심 갖게 되는 시범도시로 발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에 파급시킴으로서 전국적으로 문화재를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화유적의 전통적 가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문화재 활용을 통한 관광적 자원화의 영향은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관계가 경제영역에 소환되고 결국 그런 가치들이 생계수단으로 전락되어 관광지 지역주민의식과 그들의 문화를 파행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주⁸⁴⁾

이런 점을 보완하여 지자체 나름대로의 방향모색은 매우 의미 있는 문화재 보존의 행정방향일 것이다.

제시한 바와 같이 이러한 문화재 보존정책을 위하여 필자는 포항지역에서의 주민과 자치단체 주도의 상향적 문화재 관리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먼저 포항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배후의 4개 지역에 위치한 성(城)을 시민휴식을 위한 역사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83)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2002, 48페이지

84) 전경수. 관광과 문화. 일신사. 1994. 15페이지

홍해읍 남미질부성은 1994년 경상북도 문화재로 지정된 이래, 홍해가 포항의 인접 도시로써 포항과 연계한 도시발전이 저해되는 문제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문화재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이 계속되는 곳이며, 오천읍 고현성, 연일읍 영일읍성, 동해면 장기목장 유적 또한 각각 지정된 후 도시발전예장애물로 주민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 성 문화재를 문화재 본래의 문화재 환경으로 조성하는 동시에 도시발전과 조화된 도시기반시설로서 시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도시발전과 조화된 역사문화 체험 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매장문화재 출토유물 및 지역 민속자료, 그리고 영일만 지역자연사자료를 종합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종합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여야 한다.

포항지역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들이 국공립 박물관 및 각급 학교박물관, 문화재 발굴기관 등에 분산 수장관리 되고 있는 바, 이들 매장유물들과 포항지역 각종 민속자료로서 홍해읍 소재 영일민속박물관 소장 자료를 포함한 임곡 휴게소 민속자료 등 1만여 점, 그리고 해안과 접한 영일만의 자연사 자료로서 홍해 대련리 조개화석 및 장성동 고래화석(광주 개인 소장), 달전리 주상절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 전시할 수 있는 종합박물관을 국가지정 해맞이광장인 대보 호미곶 단지에 건립함으로써 등대박물관과 더불어 관광단지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역사교육 가치가 있는 중요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 조성 당시 생활상을 복원하여 역사학습장 및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먼저, 사적 제386호인 장기읍성에 읍성 축성당시의 의복과 생활양식, 경제활동 등을 재현하자는 것과 홍해읍 소재 영일민속박물관을 당시 행정관청 본래의 모습으로 재현 학생들에게는 역사학습장으로 일반인에게는 역사체험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해병 부대 내 일월지와 연

오랑 세오녀의 전통설화의 체험, 새마을 운동 발상지의 역사현장 체험, 일제강점기 일본식 건물의 체험현장, 연일읍 달전리의 주상절리의 돌기둥 등의 많은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지방 문화재에 대하여 지방민들의 보존의식이 중요한 만큼 지방문화유적에 대한 체험기회 확대를 위하여 각 기관 단체 학교별로 「문화유적 체험단을 구성 운영」 하여 문화유적을 바로 알고 지켜 가는데 이바지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을 행정관청에 의한 전체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사랑과 문화재 애호운동을 연계시킬 수 있는 「1사 1문화재 운동」을 펼쳐가는 것도 권고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방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지방민들이 자긍심을 갖는 정신적인 지역문화사랑 운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의 일환으로 포항 지방에서 전해오는 해와 달에 얽힌 연오랑 세오녀의 일월신화를 창작 뮤지컬로 승화시켜 시민들을 위한 공연기회를 제공함은 정신적 문화재 사랑과도 무관하지는 않다고 본다.

일곱 번째로는 경주권 신라문화 관광에 이어 포항의 문화관광 자원으로 연계되는 관광벨트 조성하자는 것이다. 경주지역의 신라문화에 대한 관광을 마치고 동해안의 절경인 해안도로를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장기읍성의 읍성주민의 생활상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이어 국내에서 유일한 장기등대박물관과 국가지정 해맞이광장,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종합박물관이 단지 화되어 있는 가칭 호미곶 관광지 관광을 할 수 있게 하며, 해안의 절경을 따라 해변 부대 내에 위치하고 있는 포항지역의 설화가 서려있는 일월지동산에서 설화에 얽힌 향수를 느낌과 동시에 군부대에 대한 간단한 체험기회를 가지는 등의 관광벨트를 조성한다.

이밖에도 ‘문화재관리전문기구설치’및‘비지정문화재보존대책’과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역문화재 보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지역민과 지방행정관청이 주도적으로 문화재를 보존을 전제한 생활공간의 일부로서 문화재를 활용하는 상향적 문화재 관리방안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지방의 나아가 우리나라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가치를 지켜가는 동시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미래의 이상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이는 문화재 보존의 근본적인 이념과도 통하는 동시에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가 효율적으로 보존된다고 본다.

또한 이제 문화재가 더 이상 개발의 걸림돌이 아니라 세계화 국제화 현실에서 우리 것을 지켜가면서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드리고 줄 것은 주면서 우리 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새길 수 있는 사회 기반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 문화유적을 보존하고 활용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경주나 부여처럼 역사고도도 아닌 전국적으로 문화재 소재 분포가 고르다고 할 수 있는 포항시를 중심을 문화재청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시범추진사업으로 실시하여 보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포항지역에서 문화재 활용을 통한 보존정책을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적인 표준시범모델로 지정되어 성공인 성과를 거양하게 됨으로서 타 지방에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포항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재된 문화재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김정배, 「관광자원관리」. 형설출판사, 서울. 1994.
- 김원룡, 「한국고고학 개설」. 일지사. 서울. 2001.
- 김성진, 「고가 종택 전통마을의 보전적 관광자원화 방안」. 한국 관광연구원. 2001.
- 한국토지공사, 「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 한국토지공사. 서울. 2002.
- 동대해문화연구소, 「동대해문화연구 제2집」. 삼양문화사. 포항. 1996
-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문화재청. 2000. 17페이지.
- _____. 「문화재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서울. 2002.
- 문화관광부. 「문화정책백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4.
- 문화체육부. 「향토사와 지역문화」. 수서원. 서울. 1995.
- 전경수, 「관광과 문화」. 일신사. 1994.
- 정문교, 「문화재행정과 정책」. 지식산업사. 서울. 2000.
- 정병국, 「우리나라 문화재 보수 정비문제 현황 및 정책대안」. 정병국의원실. 2001.
- _____, 「우리나라 문화재보존관련 정책제안」. 정병국의원실. 2002.
- 포항시. 「포항시사」. 2003.
- _____. 「포항시관광개발기본계획」. 경북. 2003
- _____. 「2004년도 포항시통계연보」. 2004
- 포항지역사회연구소. 한권으로 보는 포항의 역사. 경북. 2003

< 논 문 >

- 김근용, 「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광주. 1996.

- 김동석, 「근대건축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청주대 박사논문. 2001
- 김홍운, 「한국 전통 민속극의 관광상품으로서의 개발연구」, 성곡논총 제2편, 1991
- 박종수, 「진도 문화적관광자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박사논문. 서울. 1996.
- 박용철, 「근대건축물 보존규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2002.
- 류종열, 「경주지역 문화적 관광자원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부산. 1997
- 서정인, 「향토 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재 활용방안」. 공주대 지역사회개발. 예산. 2000
- 심진섭, 「초등학교 사회과의 문화재 교육 활성화에 관한 연구」. 관동대 석사 논문. 2001.
- 심재선, 「문화재관리 행정조직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서울. 1998.
- 이부현,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문화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인천. 1996.
- 정기정, 「예산군문화자원의 관광개발을 위한 대응방안 연구」. 공주대 석사 논문. 전주. 2000
- 정원재, 「대구시 문화재보호행정의 실태와 발전방향」. 경북대 석사논문. 대구, 1994.

< 기타 참고문헌 >

- 경북대. 「홍해 대련IC 연체동물화석발굴조사보고서」. 2000.
- 경북매일. ('03. 7. 15)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호동쓰레기매립장 확장부지 문화유적발굴조사 보고서」. 2003.

경주문화재연구소. 「장기읍성지표조사보고서」. 1991

_____. 「남미질부성성지표조사보고서」. 1991.

남궁승태. 「문화재보호와 환경권.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6.

동대해문화연구소. 「포항시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대송면, 오천읍편. 1996.

대구대학박물관. 「포항일월지표조사보고서」. 1999.

문화재청. 「문화유산 포럼 I, II, III」. 일신사. 1999-2000.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61호」 (1962)

문화체육부. 「한국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방안」. 서울. 1997.

매일신문 (‘2002. 4. 21)

삼국유사. 권 제1기.

신경북일보 (‘00. 2. 15)

위덕대박물관. 「장기산서리 구석기 유물유적 발견 보도자료」. 2000

영남일보. (‘00. 2 15)

포항시. 「우리고장 문화재」. 2004.

_____. 「수원김씨 문화재지정보고서」. 1999.

참 고 도 판



도1-1) 장기면 산서리 구석기 유적지 원경



도1-2) 장기면 산서리 구석기 유적 지층



도1-3) 장기면 산서리 구석기 유물



도1-4) 장기면 산서리 구석기 유물(석기 제작용 몸돌)



도2) 홍해 남미길부성 보존 현황도



도3-1) 홍해 남미질부성 원경



도3-2) 남미질부성 훼손전경



도3-3)남미질부성(북편절개지)



도3-4)저수지 훼손현황



도3-5)주택에 의한 훼손현장
(성의 동쪽)



도3-6)경작으로 인한 훼손



도3-7)가옥에 의한 훼손전경
(성의 남쪽)



도4)오천읍 고현성 위치도



도5-1)오천 시가지에서본 고헌성 원경



도5-2)고현성 상단부에서본 오천읍 시가지 원경



도5-3)고현성 훼손현황



도5-5)고현성 훼손 현황



도5-4)고현성 훼손현황



도5-4)고현성 훼손현황
(성 상단부)



도5-7)고현성 훼손 현황



도5-8)고현성 훼손현황
(오천-공단간 도로개통)



도5-9)고현성내 오천서원



도7-1)대송 영일읍성 원경



도7-2) 영일 읍성에서 본 성내 전경



도7-3) 영일 읍성내 남성재실



도7-4)대송남성 현감 공덕비



도8)민치역, 이최응 영세불망비



도9)홍해 제남현 건물 전경



도10-1)홍해 민속 박물관 전경



도10-2)홍해 민속 박물관 내부 전경



도11-1) 장기읍성에서 본 동해안



도11-2) 장기 읍성내 장기 향교



도11-3) 장기 읍성내 민가(19호)



도11-4) 일부 복원 완료된 읍성 모습



도12-1) 새마을 운동 발상지(기계 문성리)



도12-2) 새마을 운동 기념비(기계 문성리)



도13-1)연일읍 달전리 주상절리 형성원경



도13-2) 주상절리 돌기둥



도14-1) 일월지 동산(해병 부대내)



도14-2)일월지 전경



도15)영일 민속 박물관내 유물 보관현황



도16)영일 냉수리 신라비(신광면 사무소내)



도17-1)오어사 동종



도17-2)원효대사 삿갓(오어사 유물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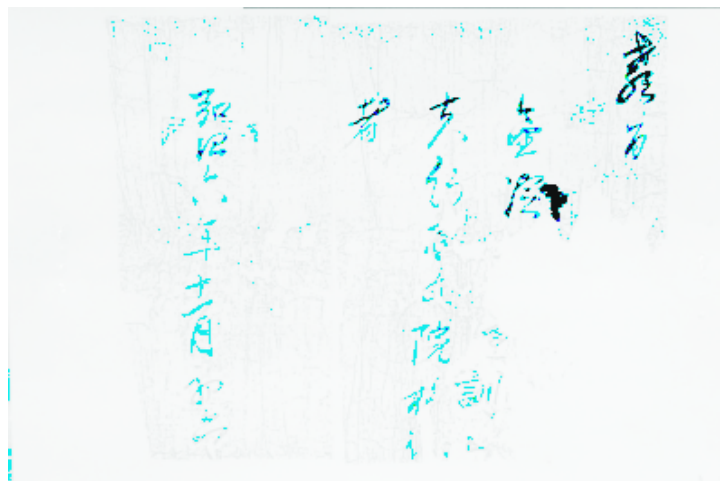
도18)보경사 서운암동종(보경사 서운암 경내)



도19-1)김정교지(사포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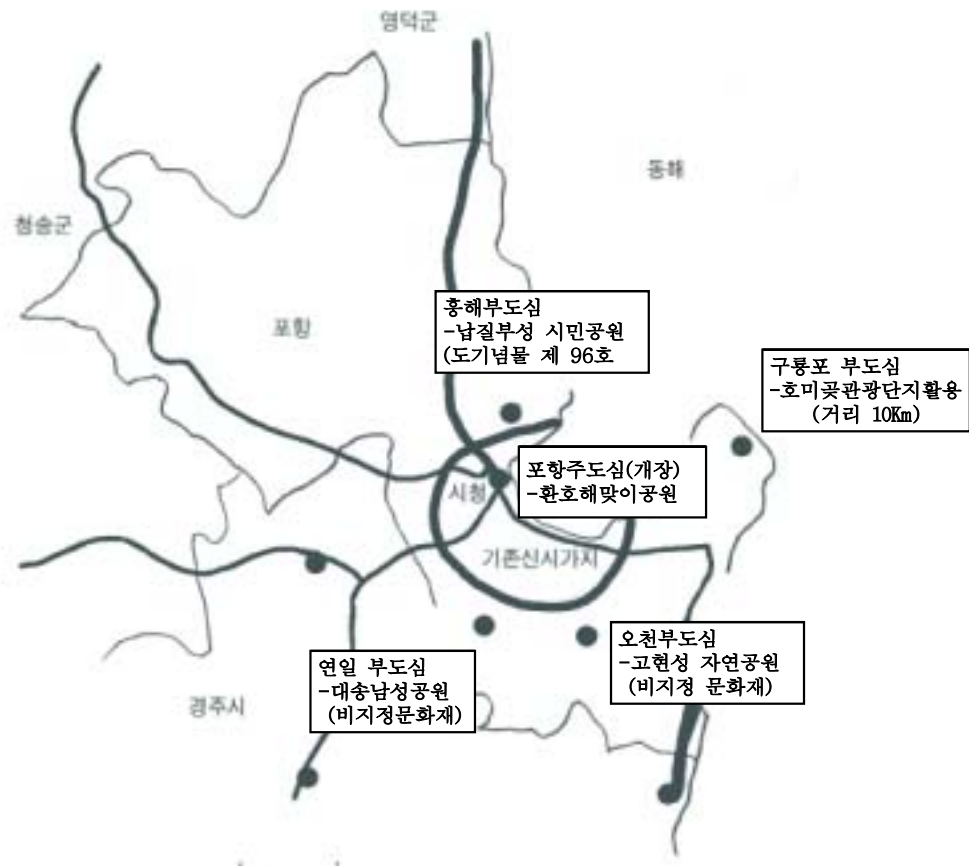


도19-2)김정교지(인동현감교리)



도19-3)김정교지(승문원 교리교지)

역사 문화 공간 조성도



도20)역사 문화 공간 조성도

역사 문화 공간 자연현황 사진



포항주도심 : 환호 해맞이 공원(2005.5 개장)



홍해부도심 : 남미 질부성(도기념물 제96호)

역사 문화 공간 자원 현황 사진



연일 부도심 : 연일읍성(비지정 문화재)



오천 부도심 : 고현성(비지정 문화재)



도21) 포스코 직원 체육공간(오천읍 고현성내)



도22) 종합 박물관 조성 가능지(등대 박물관 옆)

포항시 문화유적 관광벨트 개발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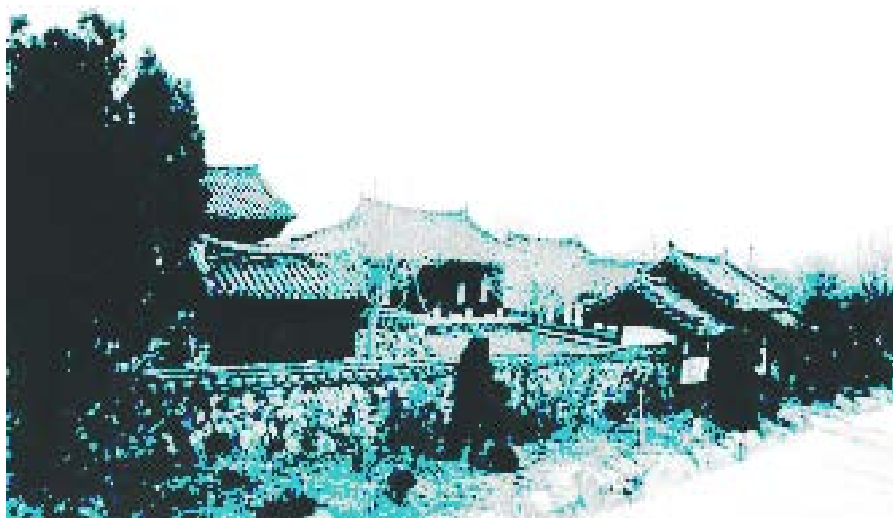
번호	지명	관광자원	문화재 지정
①	장기읍성	-장기향교	문화재자료 제 327호
		-읍성	사적 제 386호
②	호미곶 관광단지	-호미곶 해맞이 공원	
		-등대박물관(전국유일)	도 기념물 제37호
		-유채꽃 단지	
		-가칭종합박물관	매장문화재 및 민속자료 소장
③	해안드라이브코스	-모감주 나무 군락지	천연기념물 제371호
④	포항제철	-아시아최대의 철강생산	철강박물관 건립 완공
⑤	죽도시장	-경북최대의 재래시장	
⑥	내연산 보경사	-내연산 등산코스	보물3점 도지정문화재 5점
⑦	도립수목원	-입암서원	도지정 제 70호

도23) 포항시 문화 유적 관광벨트 개발계획도

관광벨트화 자원현황사진



제 1 코스 장기읍성(사적 제386호)



제 1 코스 장기 향교(문화재 자료 제327호)

관광벨트화 자원현황사진



제2코스 : 호미곶 해맞이 공원



제2코스 : 등대 박물관(도 기념물 제37호)



제3코스 :해안 드라이브코스(천연기념물인 노감주 군락지경유)



제4코스 : 포한제철(아시아 최대 철강생산)



제5코스 : 죽도시장(경북 최대 재래시장)



제6코스 : 보경사(보물 3점, 도지정문화재 5점 소유)



제7코스 : 도립 수목원(입안서원 경유)



제8코스 : 입안서원(도지정 문화재 제70호)



도24) 구룡포 일본 건물 보존 전경

ABSTRACT

Study on preservation policy by using main cultural properties in Pohang

Oh, Sang-gi

Department of cultural assets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

Supervised by Professor Kim, Chang-ho

Cultural property policies are classified into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nd preservation, research and enhancement. From 1960's, cultural property policies started to develop in Korea. But a self-governing body and citizens have very low consciousness of cultural properties because of government-leading cultural property policies. It is true that cultural property policies are focused on a protection to turn over.

It is important that a current generation experience and make use of cultural properties without damaging them. We should make a

policy that a self-governing body and citizens make use of and protect scattered cultural properties in regions.

A self-governing body and citizens have high consciousness of cultural properties by protecting and making use of scattered cultural properties in their region. Then Central government supports administratively to protect and preserve the cultural properties in every region considering regional balance.

In this point of view, administration on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led by citizens and self-governing body is shown in this thesis.

First, we should use the castle located in 3 towns behind Pohang as historical cultural space for citizens.

Heunghae town Nammijilbu castle is designated as Gyongsangbukdo cultural property in 1994. After that, local residents continue asking to cancel the designation because it hampers development. Gohyun castle in Ocheon town, Yunil town castle in Yunil town are also considered as obstacles of development.

We can use these castles as resting places for citizens and historical cultural experience place harmonized with development.

Second, we should build a complex museum which can display excavations, collection of folk material and natural historical material in Youngil bay. The excavations found in Pohang are stored and managed in National museums, excavation organizations and museums in universities. A complex museum should be built in Daebo Homi cape to manage efficiently and to use educational materials. It can be

a good tourist attraction with a lighthouse museum.

Third, we should restore the life of the age when the cultural property was created to use a historical study and tourist attraction.

Dress, life style and economic activities of that time can be restored in the Janggi town castle, historical relics No. 386. And Youngil folklore museum in Heunghae town can be restored to use historical study place for students and historical experience space for adults.

Fourth, we should make a typical tourist route to tourist attractions in Pohang. After doing the sights of Shilla culture in Gyongju, tourists can drive the coast highway to Janggi town. They experience the life of residents in the Janggi town castle and do the sights of Janggi lighthouse museum, nation-designated sunrise plaza and the complex museum that this thesis suggests. Tourists also do the sights of historical places related to a tale on Pohang and visit the Marine Corps.

Cultural properties are distributed evenly in Pohang. So if Pohang is designated by the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bureau as the standard model and the plan that local residents and a self-governing body protect and use cultural properties is successful, there will be a nationwide effect on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and protection.